

정책연구 2007-7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주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

2007. 12

제주발전연구원

발 간 사

우리나라도 지난 4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해 오는 과정에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적 대안들을 강구해야 하는 사회적·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과거에 보여준 경향과는 아주 달리 고령화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이고 결국 고령인구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구를 두어 다양한 정책적 관심 및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 장수노인층이 급격히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을 ‘장수의 섬’으로 불릴 만큼 많은 노인들이 장수하는 편이다.

이처럼 제주지역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을 보다 경험적·실증적으로 고찰하여 보다 나은 노인복지정책을 세워 나갈 때 제주지역이 ‘장수의 섬’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바로 그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제주지역의 노인교육 및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7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4. 연구방법	3
5. 연구의 기대효과	3
제2장 노인교육의 일반적 특성	5
1. 노인교육에 대한 개념적 접근	5
2. 노인교육의 특성 및 정책 변화	12
3. 노인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제3장 제주노인교육에 대한 실증조사 결과 및 해석	28
1. 조사의 설계	28
2. 조사결과 분석	29
제4장 제주노인교육의 활성화 방안	67
1. 제주노인교육의 기본 방향	67
2. 제주노인교육의 추진 전략	70
3. 제주노인교육의 현황	72
4. 제주노인교육의 개선점	75
5. 향후 제주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76
제5장 결론	82
□ 참고 문헌	85
□ 부 록(설문조사표)	87

〈표 목차〉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3-2〉 노인교육 이수 경험 여부	32
〈표 3-3〉 노인교육의 과거 이수 경험여부 교차분석표	33
〈표 3-4〉 과거 받았던 노인교육 유형	33
〈표 3-5〉 노인교육에 대한 만족도	34
〈표 3-6〉 노인교육의 주관기관	34
〈표 3-7〉 현재 노인교육 참여 여부	35
〈표 3-8〉 현재 노인교육 참여 여부 교차분석표	36
〈표 3-9〉 현재 받고 있는 노인교육 영역	36
〈표 3-10〉 현재 받고 있는 노인교육 영역 교차분석표	37
〈표 3-11〉 현재 받는 노인교육에 대한 만족도	38
〈표 3-12〉 현재 받고 있는 노인교육 만족도 교차분석표	39
〈표 3-13〉 노인교육을 받게 된 이유	40
〈표 3-14〉 노인교육 참여이유 교차분석표	41
〈표 3-15〉 노인교육의 필요성 여부	42
〈표 3-16〉 노인교육 필요성 여부 교차분석표	42
〈표 3-17〉 노인교육이 필요한 이유	43
〈표 3-18〉 노인교육의 필요 이유 교차분석표	44
〈표 3-19〉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 유형	45
〈표 3-20〉 노인교육의 유용성	45
〈표 3-21〉 노인교육의 유용성 교차분석표	46
〈표 3-22〉 노인교육의 문제점	47
〈표 3-23〉 향후 받고 싶은 노인교육	48
〈표 3-24〉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48
〈표 3-25〉 가장 오래 종사한 일	49
〈표 3-26〉 퇴직 준비를 위해 노인교육 경험 여부	50
〈표 3-27〉 퇴직 준비 노인교육의 경험 여부 교차분석표	50
〈표 3-28〉 퇴직 준비를 위해 받은 교육	51
〈표 3-29〉 퇴직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52

<표 3-30> 퇴직 후 현재 일 참여 여부	52
<표 3-31> 퇴직 후 일 참여여부 교차분석표	53
<표 3-32> 퇴직 후 현재 하고 있는 일	54
<표 3-33> 퇴직 후 현재하고 있는 일 교차분석표	54
<표 3-34> 현재 일을 하기 전에 특별 교육 수강 여부	55
<표 3-35> 퇴직 후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	56
<표 3-36> 현재 노인교육을 받고 있는 곳	57
<표 3-37> 향후 노인교육 수강 선호 기관	57
<표 3-38> 노인교육을 받는데 가장 필요한 시설	58
<표 3-39>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	59
<표 3-40> 향후 노인교육의 담당주체	59
<표 3-41> 향후 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	60
<표 3-42> 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 교차분석표	61
<표 3-43> 향후 노인교육에 대한 교육비 납부 의향여부	62
<표 3-44> 노인교육에 대한 교육비 납부의향 교차분석표	62
<표 3-45> 향후 노인교육의 진학 희망 대상학교	63
<표 3-46> 노인교육의 희망 대상학교 교차분석표	64
<표 3-47> 향후 노인교육의 참여 견해	65
<표 3-48> 향후 노인교육의 참여 태도 교차분석표	65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어 왔지만, 최근에는 더욱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변화(개방화, 자유무역협정, 정보화, 국제화, 분권화 등)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
- 1997년 12월 말에 시작된 소위 ‘IMF’ 외환금융 위기는 우리사회 전반(경제, 사회, 복지, 노동, 교육, 금융, 기업구조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함.
- 이런 외환금융 위기는 사회복지 분야에 정책적 관심을 더욱 불러오게 되었는데 이는 실업자, 취약계층, 비정규노동자, 빈곤층 등의 증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방안들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낳았음.
- 이와 더불어 2000년부터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가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에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4829만명이던 인구는 2050년에는 4234만명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65세 이상 노인은 2005년 전체 인구의 9.1%에서 2050년에는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통계청, 2006).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예컨대, 주택, 소득보장, 부양, 건강, 연금, 여가, 교육 등)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방안 모색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음(김성순 2003).

특히 노인교육은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1980년대부터 꾸준히 학문적 혹은 정책적 관심을 유지해 오고 있음(김중서, 1984; 백창연, 1988, 이병준 외,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한정란 2005).

- 제주사회는 고령화 진행 속도가 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전국보다 3년 빠른 2015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시 말해서, 제주사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10.7%를 차지하여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15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4.4%로 증가하여 ‘고령사회’ 그리고 2025년에는 20.2%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한국은행 제주본부, 2007).
- 제주지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경제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의해서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이 전망되고 있음. 물론 사회적으로 부양비의 급증과 다양한 노인문제 (예컨대, 주거, 주택, 교육, 소득, 여가, 직업, 부양, 수발, 건강, 의료, 자살 등)의 증가 현상도 예상됨. 이런 문제들이 제주지역의 고령사회 도래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음(고승한 2005;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2006).
- 이러한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과 관련된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그 가운데 노인교육 문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임.
- 노인교육은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 시대에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은퇴 후 직업, 창업 및 재테크, 소득보장, 여가, 부양, 건강 등과 같은 문제들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제주노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실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지역 노인교육의 실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고찰함.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제주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 방안을 제시함.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노인교육에 대한 개념적 접근
- 일반적 특성 및 노인교육 정책 변화 분석
- 타 지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제주지역의 노인교육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제주지역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

4. 연구 방법

- 노인교육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문헌조사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짐. 문헌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은 기술적(descriptive)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음.
- 노인교육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설문면접조사에 의한 자료수집에 근거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방법에 의존하였음.

5. 연구의 기대 효과

- 제주지역의 노인교육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해서 향후 올바른 노인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자료 제공

- 제주지역의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과 관련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언함으로써 향후 노인교육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에 기여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교육을 통한 제주지역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취업, 직업훈련교육, 그리고 여가생활 등과 같은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제주지역의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연구 영역에 대한 정책연구 발전에 기여

제 2 장 노인교육의 일반적 특성

1. 노인교육에 대한 개념적 접근

가. 노인교육의 필요성

1) 사회정의의 구현

-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 동안의 역사적·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최소 수혜자들임.
- 이로 말미암아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문자해독 능력의 저조, 경제적 빈곤, 여가문화의 부재 등의 문제를 지녀왔음.
-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적 약자가 된 이러한 노인들의 현실에 대해 적절히 보상해 줌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은 이러한 보상의 한 방법이며, 따라서 노인교육을 통해 휴머니즘과 민주적 평등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음.

2) 평생학습사회의 출현

- 인간 수명의 연장과 여가의 증대 및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평생학습사회(lifelong learning society)가 도래함.
- 평생학습사회란 어느 연령층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확장시켜 갈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회를 의미함(Sherron & Lumsden, 1990).
- 이처럼 연령과괴 현상은 평생교육원, 복지관, 문화센터와 같은 비형식적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중년이나 노년에 가까운 대학생이나 대

학원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는 등 형식교육 부문에서도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평생학습사회에서 노인들은 교육의 주체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노인교육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 현대사회의 급변한 변화에 대응

- 변화의 신속성, 다양성, 복잡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교육만으로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음.
-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현대는 변화 주기가 인간의 평균수명을 능가함으로써 한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의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음.
-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인들 역시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부단히 연마할 필요가 있음.

4) 세대간 이해

-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조부모의 역할 시기가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 및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세대 간의 접촉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
- 늘어난 노년층과 다른 세대가 어떻게 교류하고 화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의 진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노인교육, 특히 세대 통합을 위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5)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 변화 및 노인 자립 필요

- 산업화 및 현대화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경로사상은 변질되고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을 부양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노인들 역시 경제력만 있으면 굳이 자식들과 동거하려고 하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은 곧 노인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자립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재취업 및 노년기 적응교육은 필수적임.

6) 인적자본 차원에서 고령자 인력자원화의 필요성

- 과거에는 노인을 신체적, 사회적으로 장애를 지닌 불리집단(不利集團)으로 규정했으나, 인간은 평생에 걸쳐 발달한다고 하는 전생애발달(life-span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노인들을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지닌 존재이자 여전히 발달과정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함.
- 따라서 이제는 노인을 단순히 노화에 따른 신체적,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며 생존해 나가야 하는 존재로 보기 보다는, 어느 누구보다도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7) 노인의 욕구변화

-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과거의 노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욕구가 가장 시급한 것이었다면,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수준도 높아진 지금의 노인들은 그 이상의 욕구를 지니고 있음.

- 특히, 미래에 노인으로 편입될 지금의 장년층은 높은 학력과 각종 연금을 통해 경제력이 안정됨으로써 생활수준 면에서의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의 노인들과는 달리 권리 주장도 강할 것으로 전망됨.
- 이 새로운 노년층은 건강, 안전, 평온한 노후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위한 더욱 고차원적인 욕구를 지닐 것이며, 따라서 이들 노년층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인교육은 더욱 중요해 질 수밖에 없음.
- 노인들이 어떠한 교육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일은 노인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교육적 욕구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옴.
- 노인의 교육적 욕구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Howard McClusky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가 주장하는 노인의 교육적 욕구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신재주, 2002: 140-141 재인용) 다음과 같음.
 - 사회적 적응의 욕구(coping needs) : 노인들은 노화로 감퇴된 기능을 회복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려 함. 즉, 노령화에 따라 노인들은 정년퇴직, 경제적 빈곤, 배우자의 사망, 사회적 지위의 하락, 신체적 노쇠와 질병 등과 같은 내적·외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을 통하여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려고 함.
 - 표현의 욕구(expressive needs) : 교육을 통하여 어떤 다른 목적을 성취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활동 그 자체가 좋아서 체험하며, 신체운동과 사회적 활동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 함.
 - 공헌의 욕구(contributive needs) : 새로운 교육을 통하여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의미있는 역할을 찾으려 하며, 타인에게 봉사하고 새로운 능력을 발달시키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려 함.
 - 영향력의 욕구(influence needs) : 타인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

기보다는 노인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질을 조정하고 싶은 욕구를 지님.

- 초월적 욕구(transcendence needs) : 신체적 노화에 따라 교육을 통하여 신체적 젊음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본질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8)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출산률이 감소하고,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 및 위생상태의 개선 등에 따른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늘고 있음.
- 한국사회는 2001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4%를 차지하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0년에는 10.9%, 2019년에는 14.3%로 늘어나서 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2026년에는 20.8%로 늘어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통계청, 2006).
-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는 한편으로는 기존 사회구조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시키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노인교육의 수요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즉, 인구의 고령화 혹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개인적으로는 노년기 및 여가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며 따라서 확장된 노년기 및 여가를 보다 유의미하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나. 노인교육의 성격

1) 형식적-비형식적 교육

- 그 동안의 우리나라 노인교육은 대체로 평생교육원, 노인학교, 노인교실 등 비형식적 기관에서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노인에 관해 가르치기, 동네 노인들과 함께 학교에서 생활해보기, 대학에서 노인학 수업 개설 혹은 노인학습자의 시간제 등록 등과 같이 형식적 교육에서도 노인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노인교육은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2) 노인을 위한-노인에 관한-노인에 의한 교육

- 노인교육은 노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older people)인 동시에 노인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older people)이며, 노인에 의한 교육(education by older people)이기도 함.
- 즉, 노인들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 정보 등을 가르치는 노인을 위한 교육, 모든 연령층의 학습자들에게 노인과 노화 등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 노인들이 지닌 귀중한 자원인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교육적 방법을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돕는 노인에 의한 교육이라는 세 범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3) 치료적-예방적 성격

- 노인교육은 노인과 관련된 문제를 교육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동시에, 노인교육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노인교육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잠재적 노인인 모든 연령층의 학습자가 포함되는 특징이 있음.

다. 노인교육의 정의

- 1950년부터 활발히 진행된 노화에 관한 연구와 노인학(노년학)의 발전으로 노인교육(학)(educational gerontology)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노인학의 하위 분야로서 탄생함.
- 노인교육은 미성숙한 학습자들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학적 노력으로서의 교육학인 페даго지(Pedagogy)와 성숙한 학습자들에 대한 상호작용적인 교수-학습과 구성적인 지식을 전제로 하는 교육학적 노력인 앤드라고지(Andragogy)를 뛰어넘어 이것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교육적 실천과 연구로서의 교육학이라고 할 수 있음.
- 노인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학자들마다 다소 상이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음.
 - Peterson(1983)은 노인교육을 ‘노인을 위한, 노인과 노화에 관한 교육적 노력의 실천과 연구’라고 정의
 - Jarvis(1990)는 노인교육을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과 노화에 관한 교육, 그리고 노인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이들을 위한 교육의 세 분야를 포함하는, 노인을 위한, 노인과 노화에 관한 교육적 노력의 연구와 실천’이라고 정의
 - 김종서(1984)는 노인교육을 ‘첫째, 노인을 위하여 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교육, 둘째, 노인 이전의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노년기에 대비하는 교육, 셋째, 노인 자신을 위한 교육’으로 정의
 - 한정란(2001)은 ‘노인에 의한 교육’이라는 것을 노인교육학의 범위에 추가해, 노인들이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특별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나아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교육적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상의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노인교육의 개념을 종합하여, 노인교육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보면, “노인교육이란 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노

인기에 대하여 이해하고 노인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노인에 관한’ 교육이며, 노인이 교육주체가 되어 가르치는 입장을 맡는 ‘노인에 의한’ 교육이며, 노인들 및 노인들에게 노인기에 관하여 가르쳐서 노인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2. 노인교육의 특성 및 정책 변화

가. 노인교육의 유형 및 주요 특성

1) 노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Older People)

- 노인을 위한 교육이란 노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적 실천과 연구를 포함하는 교육임.
-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교육은 좁은 의미의 노인교육과 동일시되어 새로운 지식이나 변화를 다루기보다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한 여가교육 위주였음.
-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노인을 위한 교육’은 노인들의 여가를 충족하는 수단을 넘어, 노인 스스로 삶에서 자기만족이나 목적의식, 자아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 자신의 삶에 힘을 얻고 동시에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국내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은 노인교실, 노인학교,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행·재정적인 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노인을 위한 교육으로서 외국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음.
 - 매년 약 20만 명이 참여하며 전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매년 1만개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세계적인 프로그램인 엘더호스텔(Elderhostel)
 - 노인을 위한 비학점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주로 대학

등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은퇴후 학습센터(ILR: Institute for Learning in Retirement) 프로그램

- 지역 노인들에게 퇴직 후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리노이 대학교의 노인 이슈 프로그램, 대표적인 학습동아리 형태의 또래학습 프로그램인 UCLA의 ‘플라톤 학회’
- 1980년부터 58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해 시작된 보스턴 대학교의 ‘에버그린 프로그램’
- 인터넷을 이용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인 시니어넷(Senior net) 등이 있음.

2) 노인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Older People)

- 노인에 대한 교육은 노화 과정의 특성과 노년기의 과업 등 노화와 노인 에 관한 지식과 그에 적응하거나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과 기술을 다루는 것임.
- 노인에 대한 교육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그리고 사회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노인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그런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전문적인 노인교육, 그리고 퇴직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퇴직준비교육도 그 범위에 포함됨.
- 노인에 대한 교육의 대상자는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노인이 될 사람, 그리고 현재 노인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향후 노인 관련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잠재적 노인’ 임.
- 현재 국내에서 노인에 대한 교육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음.
 -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부터 2004년의 5년 동안 매년 10여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노인교육 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을 지원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노인교육 지도자과정
 - 사단법인 한국대학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2001년 6월부터 노인

교육지도자 민간자격증을 수여하는 노인교육지도자 자격증 과정

- 사립대학교들과는 별도로 사단법인 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2003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제도가 있음.

○ 노인을 위한 교육으로서 외국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음.

- 196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노년학 자격증 과정(Graduate Certificate of Gerontology),
- 1980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 노화센터의 자격증 과정,
-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노화센터 노년학 전문가 자격증 프로그램 등이 있음.

3) 노인에 의한 교육(Education By Older People)

○ 노인에 의한 교육은 노인들의 삶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려는 교육을 말함.

○ 노인에 의한 교육은 노인을 위한 교육과 노인에 대한 교육의 영역에 비해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서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교육까지 모두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교육 장면 뿐 아니라 봉사를 통한 교육적 의미의 전달까지도 포함됨.

- 즉, 역사나 전통 그리고 전문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전통예절이나 기술의 전수, 다양한 장면에서 노인의 봉사와 사회참여도 모두 포함됨.

○ 국내에서 노인에 의한 교육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음.

-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1년 한 해 동안 서울특별시의 노원구의 노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했던 초록봉사대 활동
- 전국 6개의 노인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2년부터 2004년의 3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1·3세대 통합 한 세대 만들기

- 초록봉사대를 모델로 개발된 본격적인 전문퇴직자 봉사활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등이 있음.

○ 노인에 의한 교육의 외국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음.

- 미국 미시간 주의 17개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앤 아버(Ann Arbor)의 교수학습공동체 프로그램
- 미국에서 1971년에 설립되었고 영국에서는 1988년에 설립된 미국과 영국의 노인퇴직자 자원봉사 프로그램(RSVP: 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
- 미국 노인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약 4,000개의 지회를 두고 50세 이상의 현직자 및 퇴직자 3,300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미국은퇴자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 1964년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미국 퇴직자 경영인 봉사단(SCORE: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Association) 등이 있음.

4) 은퇴 전 노인교육

- 현대 사회에서 직업으로서의 일은 성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개인의 삶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지탱해 주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함.
- 은퇴(retirement) 혹은 퇴직이란 이렇게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과 정체성을 부여하며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이러한 일로부터 물러나야 하는 하나의 중대한 사건임.

- 은퇴는 한편으로는 후배나 후손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넘겨주고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그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퇴하는 개인에게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함.
- 뿐만 아니라 은퇴에 따른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는 노화, 고독, 질병 등과 같은 노년기문제와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은퇴를 준비시키는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은퇴 전 노인교육은 좁게는 은퇴 후인 노년기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개인의 인생 전체 곧 전생애(whole-life)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은퇴 전 노인교육이 갖는 의의는 노인에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며, 퇴직이나 실업이라는 갑작스런 변화에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 후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 Havighurst(1972)는 노인의 재교육 영역을 다음 9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은퇴 전 노인교육의 내용으로 원용할 수 있음.
 - 새로운 과학문명과 기술진보에 적응하기
 - 노년기의 건강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과 이에 적응하기
 - 친구 혹은 친지와와의 사별에 적응
 - 집단의 소속관계를 유지 확보
 - 배우자의 사별에 적응하기
 - 퇴직 후의 감소한 수입에 적응
 - 자신의 죽음에 대처하기
 -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나 구체적인 감각에 접근하려는 의욕과 이에

적응하는 문제

- 노년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 김종서(1984: 215-252)도 60세 이후의 발달과업을 다음과 같이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등으로 지적했는데, 이것 역시 은퇴 전 노인교육의 내용으로 활용 가능함.
 - 지적영역: 세대차와 사회변화를 이해하며, 퇴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배우기,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최신동향 알기, 건강증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 갖기 등
 - 정의적 영역: 적극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취미를 계속 살리고, 여가를 즐겁게 보내며, 정년퇴직과 수입 감소에 적응하고,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배우자 사망 후의 생활에 적응하고, 동료 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준비하기 등
 - 사회적 영역: 동년배 노인들과 친교를 유지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물려주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구실을 하며, 자녀 또는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등
 - 신체적 영역: 줄어가는 체력과 건강에 적응하며, 노년기에 알맞은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며, 건강유지에 필요한 알맞은 섭생을 하며, 질병이나 쇠약에 대한 바른 처방 등
- 퇴직 준비교육의 국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정년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통하여 실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직,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인 전직교육(직업전환교육, outplacement)
 - 입사 연령대별로 5단계의 생애설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포스코의 생애설계 지원 프로그램
 - 재취업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2개 과정이 진행되는 두산 중

공업의 전직지원센터

- 창업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하는 한국통신 그린플랜 지원센터 등이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일본의 경우, 1992년 ASW(the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for Middle-Aged and Elderly Workers)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75개 대기업들 중 61%가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준비 교육 실시 기업들 중 절반 정도가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97.5%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12.5%는 그 배우자까지 함께 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일본 기업들의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사가 공동으로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미쯔비시(Mitsubishi) 전기, 회사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일본 IBM, 노조가 주최가 되어 퇴직준비 교육을 실시하는 브리지 스톤(Bridge Stone) 등이 있음.
- 미국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 각종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퇴직을 맞이하기 전 중년에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의 사회적응에 이르기까지를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노화센터(Aging Center)나 노년학센터(Gerontology Center), 평생교육센터(Continuing Education Institute) 등을 통해 다양한 퇴직 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5) 은퇴 후 노인교육

- 은퇴 후 노인교육은 은퇴 전 노인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실제 퇴직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교육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은퇴 후 노인교육은 생활교육영역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가 및 취미 활동 프로그램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여가취미활동 프로그램들은 춤, 노래, 운동 등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보다 양질의 은퇴 후 노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취미 및 교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늘어난 노후기간의 경제력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등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시점임.

나. 한국의 노인교육의 정책 변화

1) 노인교육의 정책 변화 및 실태

- 노인교육의 정책은 노인들의 가족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와 매우 깊은 상관을 맺고 변화되어 왔음.
- 과거 가부장대가족제도 하에서 노인들(특히 남성노인들)은 한 마디로 모든 가족원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존재였는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과 지위를 지녔음.
 - 가장(家長), 즉 가정의 윗 어른이고 외부에 대한 가족의 대표자
 - 모든 가족원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가족의 상징이자 원로
 - 자녀들에 대해서는 가정교육과 가족의 사회화와 그리고 징계와 훈계의 책임자
 - 가정의 운영을 맡아 경제를 책임지는 가산(家産) 관리자이자 가계의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그러나 현대 가족 속에서의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크게 달라짐.
 - 젊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 내 의사결정의 주도권이 가정의 최고령자인 노인에게서 젊은 부부에게로 옮겨졌음.

- 사회변화의 가속화와 현대과학의 발달은 노인들의 전통적인 방법과 가치관에 근거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들의 오랜 인생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화석화(化石化)시켜버렸음.
 - 과거 가족의 기능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교육의 기능 중 일부 혹은 거의 전부가 학교와 같은 형식적 교육기관으로 이양됨에 따라 가정교육의 책임자로서의 노인의 역할이 축소됨.
 - 가족 중심의 농경산업구조가 공업 및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기능은 매우 축소되었고, 산업화와 공업화로 생산의 효율성이 경제가치의 제일 척도가 됨에 따라 경제권은 생산성이 우수한 젊은 층으로 옮겨가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노인들은 퇴직 등으로 가정 내 경제권을 상실하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짐으로써 젊은이들의 부양만을 기대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됨.
-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들은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지역사회의 대표자인 동시에 한 마을의 지도자
 - 마을의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회교육자
 - 마을의 원로로서 마을의 모든 구성원들과 젊은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존재였음.
 - 국가적 차원에서도 노인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음.
-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크게 위축 혹은 추락한 상황임.
- 산업화의 진전과 도시의 발달로 많은 인구가 직장과 근접한 주거지인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는 친족 및 씨족 중심의 지역사회의 해체로 연결되었으며, 이러한 도시중심의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노인들은 막강한 의사결정권과 지역사회 통제권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음.
 - 근대적인 행정체도의 발달과 전문 행정관료의 등장으로 지역사회의

행정이 거의 전적으로 전문적인 행정기구와 직업적인 행정 관료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음.

- 따라서 과거 지역행정의 중심으로서 자리했던 노인의 역할과 기능도 자연스럽게 축소 혹은 상실하게 되었음.
- 공업화와 근대적인 생산기술의 발달은 노인들을 생산현장으로 부터 몰아낸 결과, 경제력을 상실한 채 노인들은 과거 사회와 경제의 중심이자 대표로서의 지위는 상실되고 사회의 주변인 혹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됨.

○ 이상의 노인들의 가족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는 노인교육정책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겼으며, 이 중 일부는 노인교육 정책에 여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 첫째, 노인교육정책에 노인의 재적응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 즉, 현대사회 변화에 따라 노인들이 과거에 습득하고 축적해 온 지식과 기술이 화석화되어 가고 있음은 노인들이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재적응 교육 및 현대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 둘째, 노인교육정책에 재취업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 즉 과거에 비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보다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정년에 의하여 노인들은 일정연령에 이르면 산업현장으로 부터 밀려나야 하지만 정년퇴직기에 자녀를 출가시키는 등 목돈이 가장 필요하다는 일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일을 계속 할 능력을 가진 노인들에게 재취업 및 재배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 셋째, 세대공동체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과제가 있음. 즉, 노인인구의 상대적인 증가와 사회변화 주기의 단축으로 세대 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로 세대 간에 가족 내에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전

통의 전수자로서, 도덕적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노인의 부재는 향후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어린 세대들에게 가족 내에서 노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 맺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세대 간 이해를 확대하고 세대 간에 다양한 접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대 차를 극복하고 세대 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대공동체 교육의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됨.

○ 이상과 같은 노인교육정책의 과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 12월 발표한 「노인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 계획에서는 새롭게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노인교육의 기본방향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하였음.

- ① 생애단계별 교육기회의 재분배
- ② 평생교육의 기반 마련을 통한 평생자기개발체제 구축
- ③ 경제력이 있는 고학력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 특성화
- ④ 퇴직 전후 교육을 평생교육체제에 도입하여 노인교육의 지평 확대
- ⑤ 사회참여를 통해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 마련
- ⑥ 세대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연령 통합적 사회 구축

-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고령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음.

- ① 노인교육의 인프라 구축
- ② 다양한 기관을 통한 노인교육기회의 확대
- ③ 맞춤형·전문화된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④ 고령인적자원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
- ⑤ 노인교육담당자 양성을 통한 노인교육 전문성 제고
- ⑥ 사회통합을 위한 세대 간 교류 확대 및 이해 증진 등.

3. 노인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노인교육 지원체제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교육의 개념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노인교육정책 또한 산발적, 간헐적으로 준비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의 정책이 부진하며, 적극적인 노인교육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노인교육을 전담하는 정부부처 및 부서가 없어 제대로 된 노인교육정책이 나오기 어려움.
- 노인교육정책에 관련된 법령도 독자적인 것이 확립되지 않음. 예컨대 노인학교를 설립코자 할 때 어떤 법에 의해 설치,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노인교육 지원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노인교육의 개념 정립
 - 노인교육 관련 법체계의 정비
 - 노인교육 기회의 확대 : 노인교육 실태 파악 및 노인교육기회 확대, 지역별 평등한 노인교육기회 제공, 대학의 노인교육 참여기회 제공 및 확대, 초·중등학교의 노인교육 참여기회 제공 및 확대, 정부기관 및 기업체의 정년 전 교육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노인교육 내용의 충실 :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인교육 교재 개발, 노인학교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이점과 공통점 마련, 은퇴 전 노후준비교육의 실시, 정보화·세계화 사회적응을 위한 관련 교육내용 제시 등이 해결되어야 함.
 - 노인교육 시설 완비 : 노인교육시설 설치규정의 명확성 보장과 노인교육기관의 사회교육시설로의 종합이 선행되어야 함.

- 노인교육 전담 부서와 전문가 양성 : 노인교육 주무부처 및 전담부서의 설치, 노인교육 전담기구의 설치, 종합조정기능과 담당 부서의 강화,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직 종사자의 양성, 노인교육 담당자 부족 및 담당자의 전문화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노인교육 재정보호와 협력체제 구축 : 노인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민간자원의 확충과 지역사회와의 연속성 강화, 노인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체제 강화, 노인교육을 통한 노인세력화 방안 강구 등이 선행되어야 함.

나) 노인교육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1) 노인교육의 부실

-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노인교육의 대상은 점증하는데 비해 노인교육의 실체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음.
- 평생교육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및 환경조성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지만 유아교육 및 청소년교육과 비교해 보면 노인들이 학습자로서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정책부족과 노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여 노인교육과 노인복지가 별개로 나뉘어져서 접근되고 있는데, 노인교육은 영세한 민간기관 및 종교기관에 주로 의존되어서 노인교육의 대부분은 민간이 책임을 지고 있으며(김태준, 2006: 124), 노인교육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부로 다룸으로서 지식기반사회에서 노인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1999년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노인을 평생교육대상자로 보고 있으나,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노인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을 발견할 수 없으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선택과목으로 노인교육개론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도 소수의 대학에서만 개설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사가 노인교육시설에는 거의 배치되고 있지 않음(한정란 외, 2006: 344).

(2)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문제

- 노인학교와 노인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대개의 경우 교육의 기본 원칙 또는 특정기준에 준해서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 수강자의 학습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함.
-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오락과 여가활동위주로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며, 노인을 위한 직업훈련, 사회참여 또는 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김태준, 2006: 125).

(3) 노인교육 전문성 부재

- 노인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노인교육을 담당할 노인교육지도자 양성체제 또한 미비한 현실임.
- 현재 노인학교에서의 강의는 상당한 강사료를 지불해 교수나 특정문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무원이나 지역사회 유지들을 초빙해 무료강의를 듣는 경우, 노인학교의 운영책임자 단독으로 연중 계속 강의를 하는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임.

(4) 노인교육 예산부족

- 예컨대, 노인학교의 운영비 조달방식은 운영자가 학교운영비를 전담하

거나 지출내역 중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경우, 운영자 자신은 경비부담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 유지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전액을 학생회비에 의존하는 경우 등 학교별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 노인학교 교육의 소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복지적인 관점에서 노인학교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함.

(5) 노인교육 조직에 대한 관리 부실

- 노인학교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교육정도, 교양, 자질, 성격, 경험, 직업 등은 해당 학교의 운영형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노인학교는 자체시설이 없어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을 주당 몇 시간씩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노인 학생들은 시설 사용시간의 제한 때문에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 노인여가시설로 인식되는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은 노인학교와 분리되어 각기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임.

(6) 바람직한 노인교육 운영체제 실현을 위한 해결 과제

- 노인교육의 법적 강화:
 -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출발하였지만 노인복지적 차원과 맥을 같이 하면서 운영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시설로 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특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노인교육기관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성인교육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도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평생교육법 하에서 노인교육을 운영하는 곳은 대학부설로 운영되는 노인교실과 평생교육원 교과과정 중 노인지도자 과정을 실시하는 몇몇 군데에 불과함. 또한

교육부에 신고만 할 뿐 별다른 지도, 감독 등과는 관계가 없는 현실임.

- 따라서 노인학교, 노인교실 등 모든 노인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성인교육시설로 인가될 수 있도록 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노인학교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 교육법상으로는 노인대학 또는 노인학교는 정규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전국의 대다수의 노인교육기관이 노인대학, 경로대학, 노인학교라는 명칭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노인교육 전문가 양성

- 현존 노인학교 운영자나 종사자들 대부분은 노인교육분야에 있어 초심자인 경우가 많음.
-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노인학과(가칭)나 노인교육전공을 설치해 노인교육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노인교육 재정 확보

○ 노인교육조직의 네트워크 형성

- 각종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여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인교육조직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 노인과 노인교육에 대한 기존의 관점의 획기적 변화

- 미래의 노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지님으로써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
- 따라서 향후 노인교육은 단순한 취미, 여가를 넘어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케 한다는 ‘학습’(learning)의 개념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는 노인들의 이러한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할 것임.

제 3 장 제주노인교육에 대한 실증조사 결과 및 해석

1. 조사의 설계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노인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제주지역 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또한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교육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직접(face-to-face) 면접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아울러 응답자가 직접 기입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도 부가적으로 사용됨.
- 조사의 모집단은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할당을 고려하여 단순무작위표출 방법에 의해서 최종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500명으로부터 설문조사한 자료들 가운데 4개의 응답부실 사례를 뺀 나머지 496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0월 2일 ~ 10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음.
- 수집된 자료는 Coding Edit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됨.

2. 조사결과 분석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노인의 일반적 특성 분포는 <표 3-2>와 같음.
- 조사대상자의 출생지역별 분포를 보면, 제주시 지역이 148명(2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귀포시 108명(21.8%), 북제주군(구) 92명(18.5%), 남제주군(구) 50명(10.2%), 그리고 타시도 출생지역이 98명(19.8%)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타시도 출생지 가운데 호남지역이 전체 타시도 출생지 가운데 39.8%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영남지역 출생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역과 관련해서, 북제주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174명(35.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시 144명(29.0%), 남제주군(구) 118명(23.8%),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에는 60명(12.1%) 순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자의 지역에서 거주해 온 보면 60년 이상이 전체 응답자 중 372명(75.0%)이 차지하여 대다수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부분 오랫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전체 가운데 221명(4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와 사는 경우는 135명(27.2%), 혼자 사는 경우 107명(21.6%),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26명(5.2%), 그리고 친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7명(1.4%) 순으로 나타났음. 응답 노인들의 대다수가 부부 둘이서 살거나 혹은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생활형편이 보통인 경우가 248명(5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경우가 124명(25.0%), 그리고 생활형편이 나은 편이 124명(25.0%)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496명 중 60대가

272명(5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70대가 171명(34.5%), 그리고 80세 이상이 53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 496명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이 139명(2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가 124명(25.0%), 무학 102명(20.6%), 고등학교 86명(17.4%), 대학 졸업 이상 27명(5.4%), 그리고 전문대학 18명(3.6%)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496명 가운데 남성은 235명(47.4%)이었으며, 여성은 261명(52.6%)이었다.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연령	60대	272	54.8
	70대	171	34.5
	80세 이상	53	10.7
최종학력	무학	102	20.6
	초등학교	139	28.0
	중학교	124	25.0
	고등학교	86	17.4
	전문대학 졸	18	3.6
	대학 졸 이상	27	5.4
성별	남성	235	47.4
	여성	261	52.6
출생지역	제주시	148	29.8
	서귀포시	108	21.8
	북제주군(구)	92	18.5
	남제주군(구)	50	10.2
	서울	14	2.8
	충청도	9	1.8
	강원도	4	0.8
	전라도	39	7.9
	경상도	17	3.4
	경기도	14	2.8
	외국	1	0.2
거주지역	제주시	144	29.0
	서귀포시	60	12.1
	북제주군(구)	174	35.1
	남제주군(구)	118	23.8
거주기간	20년 이하	13	2.6
	21년-40년	64	12.9
	41년-60년	47	9.5
	61년-80년	336	67.7
	81년 이상	36	7.3
동거인/ 거주자	혼자	107	21.6
	배우자	221	44.6
	자녀	135	27.2
	친족	7	1.4
	배우자와 자녀	26	5.2
생활형편	매우 어렵다	23	4.6
	대체로 어렵다	101	20.4
	보통이다	248	50.0
	대체로 나은 편이다	113	22.8
	매우 나은 편이다	11	2.2
합 계		496	100.0

나. 노인교육의 과거와 현재

1) 노인교육 과거 이수 경험여부

- 노인을 위한 교육을 받아본 응답자는 260명(52.4%), 받아보지 못한 응답자는 136명(47.6%)로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2〉 노인교육 이수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	260	52.4
아니오	236	47.6
합 계	496	100.0

- 노인교육을 과거에 받은 경험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3-3. 참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노인교육을 과거에 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읍·면지역은 노인교육을 경험했다는 응답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동등하게 나타남.
-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만 노인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나머지는 노인교육을 받아보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높을 때와 여성보다는 남성이 노인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많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 70대와 80대 이상 보다는 60대에서 노인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따라서 전체적으로도 노인교육을 과거에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응답자들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P < 0.001$),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P < 0.001$),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P < 0.01$),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P < 0.05$) 과거에 노인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학력, 경제수준, 성별, 연령과 노인교육 이수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3〉 노인교육의 과거 이수 경험여부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노인교육 과거 이수경험 여부	
		예	아니오
거주지역 $x^2 = 1.888$ $p = .389$	제주시	56.9	43.1
	서귀포시	53.3	46.7
	읍·면지역	50.0	50.0
학 력 $x^2 = 45.906$ $p = .000***$	초등학교 이하	37.3	62.7
	중졸	61.3	38.7
	고졸	69.8	30.2
	대학 이상	75.6	24.4
경제수준 $x^2 = 17.638$ $p = .000***$	상	65.3	34.7
	중	52.8	47.2
	하	38.7	61.3
성 별 $x^2 = 7.116$ $p = .008**$	남성	58.7	41.3
	여성	46.7	53.3
연 령 $x^2 = 8.734$ $p = .013*$	60대	58.1	41.9
	70대	47.4	52.6
	80대 이상	39.6	60.4
전 체		260(52.4)	236(47.6)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3-4〉 과거 받았던 노인교육 유형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기술 교육	11	2.2
일반교양 교육	78	15.7
취미·오락 교육	89	17.9
경제 교육	14	2.8
봉사 교육	48	9.7
정보화 교육	21	4.2
해당무	235	47.5
합 계	496	100.0

- 응답 노인들이 과거 받았던 노인교육은 취미·오락교육이 89명(1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교양 교육 78명(15.7%), 봉사교육 48명(9.7%), 정보화 교육 21명(4.2%), 경제교육 14명(2.8%),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기술 교육 11명(2.2%)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4. 참고).

- 노인교육의 만족도는 만족 134명(27.0%), 보통 108명(21.8%), 불만족 29명(3.8%)로 응답함으로써 불만족보다는 만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표 3-5. 참고).

〈표 3-5〉 노인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2	0.4
대체로 불만족	17	3.4
보통이다	108	21.8
대체로 만족	118	23.8
매우 만족	16	3.2
해당무	235	47.4
합 계	496	100.0

〈표 3-6〉 노인교육의 주관기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행정기관	40	8.1
농협	40	8.1
노인회	55	11.1
민간기관	69	13.9
노인종합복지회관	39	7.9
양로원/요양원	18	3.6
해당무	235	47.4
합 계	496	100.0

- 응답자가 과거 노인교육을 받을 때 담당하였던 기관을 살펴보면, 민간기관이 69명(13.9%)으로 가장 많고, 노인회 55명(11.1%), 행정기관과 농협 각 40명(8.1%), 노인종합복지회관 39명(7.9%), 양로원/요양원 18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민간기관이 노인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관했던 것으로 나타남(표 3-6. 참고).

2) 노인교육의 현재 참여 여부

- 현재 노인교육의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98명(60.1%)이고, ‘참여하고 있다’가 198명(39.9%)으로 나타나 현재 노인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3-7. 참고).

〈표 3-7〉 현재 노인교육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	198	39.9
아니오	298	60.1
합 계	496	100.0

- 노인교육 현재 참여여부를 주요 변인과 관련하여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표 3-8. 참고), 제주시와 읍·면지역은 노인교육에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귀포시 지역은 노인교육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교 이하와 중졸, 대학이상은 노인교육에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고졸인 경우는 현재 노인교육의 참여에 경험했다는 응답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동등하게 나타남.
- 경제수준이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현재 노인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한 연령이 낮은 노인일수록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노인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인들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P < 0.05$),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P < 0.001$), 거주지역이 제주시 이외의 지역일수록 ($P < 0.001$) 현재 노인교육을 받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따라서 학력, 경제수준, 거주

지역과 현재 노인교육 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 (표 3-8. 참고).

〈표 3-8〉 현재 노인교육 참여 여부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현재 노인교육 참여 여부	
		예	아니오
거주지역 $x^2 = 21.667$ $p = .000^{***}$	제주시	28.5	71.5
	서귀포시	63.3	36.7
	읍·면지역	40.8	59.2
학 력 $x^2 = 9.708$ $p = .021^*$	초등학교 이하	33.2	66.8
	중졸	45.2	54.8
	고졸	50.0	50.0
	대학 이상	42.2	57.8
경제수준 $x^2 = 37.223$ $p = .000^{***}$	상	55.6	44.4
	중	42.7	57.3
	하	18.5	81.5
성 별 $x^2 = 0.266$ $p = .606$	남성	38.7	61.3
	여성	41.0	59.0
연 령 $x^2 = 5.515$ $p = .063$	60대	43.4	56.6
	70대	38.6	61.4
	80대 이상	26.4	73.6
전 체		198(39.9)	298(60.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3-9〉 현재 받고 있는 노인교육 영역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기술 교육	4	0.8
일반교양 교육	55	11.1
취미, 오락 교육	96	19.4
경제 교육	13	2.6
정보화 교육	32	6.5
해당무	296	59.6
합 계	496	100.0

- 현재 받고 있는 노인교육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취미·오락교육은 96명(1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교양 교육 55명(11.1%), 정보

화교육 32명(6.5%), 경제교육 13명(2.6%),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기술 교육 4명(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응답 노인들이 취미·오락을 위한 교육과 일반 교양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표 3-9 참고).

- 거주지역, 학력, 경제수준, 성별, 연령과 현재 노인교육 참여 유형과의 교차 분석을 한 결과가 <표 3-10>에 잘 나타나 있음. 먼저, 거주지역 별로 보면, 제주시 지역의 노인들은 일반교양 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반면에 서귀포시과 읍·면지역 노인들은 취미·오락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음. 대부분의 응답 노인들은 취미·오락교육을 다른 교육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0> 현재 받고 있는 노인교육 영역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현재 받고 있는 노인교육 영역				
		직업기술 교육	일반교양 교육	취미오락 교육	경제 교육	정보화 교육
거주지역 $x^2 = 16.942$ $p = .031^*$	제주시	4.9	36.6	29.3	7.3	22.0
	서귀포시	0.0	28.9	36.8	13.2	21.1
	읍·면지역	1.7	24.0	57.9	4.1	12.4
학 력 $x^2 = 25.348$ $p = .013^*$	초등학교 이하	1.3	27.5	58.8	2.5	10.0
	중졸	1.8	33.3	36.8	7.0	21.1
	고졸	4.5	27.3	43.2	4.5	20.5
	대학 이상	0.0	10.5	47.4	26.3	15.8
경제수준 $x^2 = 15.226$ $p = .055$	상	1.4	14.1	56.3	11.3	16.9
	중	2.8	33.0	43.4	3.8	17.0
	하	0.0	43.5	43.5	4.3	8.7
성 별 $x^2 = 3.327$ $p = .505$	남성	2.2	30.4	42.4	5.4	19.6
	여성	1.9	25.0	52.8	7.4	13.0
연 령 $x^2 = 7.647$ $p = .469$	60대	3.3	25.8	46.7	6.7	17.5
	70대	0.0	25.8	51.5	7.6	15.2
	80대 이상	0.0	50.0	42.9	0.0	7.1
전 체		4(2.0)	55(27.5)	96(48.0)	13(6.5)	32(16.0)

* $P < 0.05$ ** $P < 0.01$ *** $P < 0.001$

- 연령별로 살펴보면, 80대 이상만 일반 교양교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60대와 70대에서는 취미·오락교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노인들은 취미·오락교육과 일반교양교육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인들 가운데 제주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일반교양 교육을 받고, 또한 제주시 이외의 서귀포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취미·오락교육을 받는 경향이 있고($P < 0.05$),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게 나타남($P < 0.05$). 따라서 거주지역과 학력 수준이 현재 노인교육 참여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
- 현재 받고 있는 노인교육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현재 만족하다가 114명(23.0%)으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 77명(15.5%), 그리고 불만족하다가 9명(1.8%)로 나타남.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하여 만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표 3-11. 참고).

〈표 3-11〉 현재 받는 노인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1	0.2
대체로 불만족	8	1.6
보통이다	77	15.5
대체로 만족	95	19.2
매우 만족	19	3.8
무응답	296	59.7
합 계	496	100.0

〈표 3-12〉 현재 받고 있는 노인교육 만족도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현재 받고 있는 노인교육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거주지역 $x^2 = 7.113$ $p = .130$	제주시	4.9	48.8	46.3
	서귀포시	5.3	50.0	44.7
	읍·면지역	4.1	31.4	64.5
학 력 $x^2 = 8.943$ $p = .177$	초등학교 이하	6.3	38.8	55.0
	중졸	1.8	49.1	49.1
	고졸	2.3	27.3	70.5
	대학 이상	10.5	31.6	57.9
경제수준 $x^2 = 11.077$ $p = .026^*$	상	1.4	29.6	69.0
	중	4.7	42.5	52.8
	하	13.0	47.8	39.1
성 별 $x^2 = 0.723$ $p = .697$	남성	5.4	35.9	58.7
	여성	3.7	40.7	55.6
연 령 $x^2 = 13.929$ $p = .008^{**}$	60대	2.5	41.7	55.8
	70대	7.6	25.8	66.7
	80대 이상	7.1	71.4	21.4
전 체		9(4.5)	77(38.5)	114(57.0)

* $P < 0.05$ ** $P < 0.01$ *** $P < 0.001$

- 응답 노인들이 현재 노인교육을 받는 만족도를 거주지역, 학력, 경제수준, 성별, 연령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 대체로 불만족보다는 만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다만 만족보다는 보통의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표 3-12. 참고).
- 따라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불만족보다는 만족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P < 0.05$), 연령이 많을수록($P < 0.01$) 현재 받고 있는 노인교육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노인의 경제수준과 연령이 현재 노인교육에 대한 참여 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

3) 노인교육의 필요성 및 유용성

- 교육을 받게 된 이유는 친구의 권유 때문에 76명(15.3%)로 가장 많

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58명(11.7%), 지식 및 소양 쌓는데 도움이 되어서 49명(9.9%), 용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어서 8명(1.6%), 건강을 위해서 6명(1.2%), 신문, 방송에서 광고하니까 3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13. 참고).

〈표 3-13〉 노인교육을 받게 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친구의 권유 때문에	76	15.3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58	11.7
용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어서	8	1.6
신문, 방송에서 광고하니까	3	0.6
지식 및 소양 쌓는데 도움이 되어서	49	9.9
건강을 위해서	6	1.2
해당무	296	59.7
합 계	496	100.0

- 노인교육 참여이유를 교차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거주지역이 제주시와 읍·면지역의 경우는 친구의 권유로 노인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반면에 서귀포시 거주 노인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리고 학력별로 보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나머지는 친구의 권유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3-14. 참고).

〈표 3-14〉 노인교육 참여이유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노인교육 참여이유					
		친구의 권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용돈 버는데 도움	신문, 방송에서 광고	지식, 소양 쌓는데 도움	건강을 위해서
거주지역 $x^2 = 20.385$ $p = .026^*$	제주시	39.0	24.4	2.4	4.9	29.3	0.0
	서귀포시	21.1	34.2	10.5	2.6	31.6	0.0
	읍·면지역	43.0	28.9	2.5	0.0	20.7	5.0
학 력 $x^2 = 33.472$ $p = .004^{**}$	초등학교 이하	45.0	33.8	1.3	0.0	17.5	2.5
	중졸	36.8	21.1	3.5	1.8	31.6	5.3
	고졸	40.9	22.7	9.1	0.0	27.3	0.0
	대학 이상	5.3	47.4	5.3	10.5	26.3	5.3
경제수준 $x^2 = 8.887$ $p = .543$	상	26.8	29.6	5.6	2.8	31.0	4.2
	중	44.3	28.3	2.8	0.9	20.8	2.8
	하	43.5	30.4	4.3	0.0	21.7	0.0
성 별 $x^2 = 1.693$ $p = .890$	남성	37.0	27.2	3.3	1.1	28.3	3.3
	여성	38.9	30.6	4.6	1.9	21.3	2.8
연 령 $x^2 = 9.600$ $p = .476$	60대	33.3	26.7	4.2	1.7	30.0	4.2
	70대	43.9	30.3	4.5	1.5	18.2	1.5
	80대 이상	50.0	42.9	0.0	0.0	7.1	0.0
전 체		76(38.0)	58(29.0)	8(4.0)	3(1.5)	49(24.5)	6(3.0)

* $P < 0.05$ ** $P < 0.01$ *** $P < 0.001$

- 경제수준이 상위에 있는 노인은 ‘지식·소양 쌓는데 도움이 되어서’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반면에,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남성과 여성,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노인교육 참석 이유가 ‘친구의 권유’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의 권유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식·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거주지역($P < 0.05$)과 학력 수준($P < 0.01$)은 노인교육 참여 이유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
- 노인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 응답이 410명(82.7%), 부정적인 응답이 86명(17.3%)로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표 3-15. 참고).

〈표 3-15〉 노인교육의 필요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	410	82.7
아니오	86	17.3
합 계	496	100.0

〈표 3-16〉 노인교육 필요성 여부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노인교육 필요성 여부	
		예	아니오
거주지역 $x^2 = 5.483$ $p = .064$	제주시	78.5	21.5
	서귀포시	76.7	23.3
	읍·면지역	86.0	14.0
학 력 $x^2 = 4.952$ $p = .175$	초등학교 이하	79.3	20.7
	중졸	85.5	14.5
	고졸	83.7	16.3
	대학 이상	91.1	8.9
경제수준 $x^2 = 13.673$ $p = .001^{**}$	상	91.1	8.9
	중	83.1	16.9
	하	73.4	26.6
성 별 $x^2 = 0.425$ $p = .514$	남성	83.8	16.2
	여성	81.6	18.4
연 령 $x^2 = 2.472$ $p = .291$	60대	84.9	15.1
	70대	80.7	19.3
	80대 이상	77.4	22.6
전 체		410(82.7)	86(17.3)

* $P < 0.05$ ** $P < 0.01$ *** $P < 0.001$

- 노인교육 필요성 여부를 교차분석 한 결과를 보면, 거주지역, 학력, 경제수준, 성별, 연령별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16. 참고). 특히 경제수준과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P < 0.01$)를 보이고 있음.

〈표 3-17〉 노인교육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115	23.2
젊어서 못 배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68	13.7
친구와 어울리는 기회가 되어서	67	13.5
새로운 일자리 얻는데 도움이 되어서	18	3.6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어서	142	28.6
무응답	86	17.4
합 계	496	100.0

- 노인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먼저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어서 142명(2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115명(23.2%), 젊어서 못 배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68명(13.7%), 친구와 어울리는 기회가 되어서 67명(13.5%), 새로운 일자리 얻는데 도움이 되어서 18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17. 참고).
- 노인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의 노인은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어서’ 노인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읍·면지역의 노인에게 노인교육은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학력별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와 중졸, 고졸은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어서, 대학이상은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3-18. 참고).

〈표 3-18〉 노인교육의 필요 이유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노인교육 필요 이유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젊어서 못 배워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일 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되어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어서
거주지역 $x^2 = 21.132$ $p = .007^{**}$	제주시	17.0	20.5	19.6	5.4	37.5
	서귀포시	17.4	13.0	10.9	6.5	52.2
	읍·면지역	34.9	15.5	15.9	3.6	30.2
학 력 $x^2 = 20.271$ $p = .062$	초등학교 이하	25.5	18.2	20.3	4.2	31.8
	중졸	22.6	15.1	14.2	5.7	42.5
	고졸	32.4	19.7	9.9	1.4	36.6
	대학 이상	46.3	7.3	14.6	7.3	24.4
경제수준 $x^2 = 27.563$ $p = .001^{**}$	상	40.7	15.0	9.7	1.8	32.7
	중	18.0	16.5	20.4	5.3	39.8
	하	35.2	18.7	15.4	5.5	25.3
성 별 $x^2 = 7.421$ $p = .115$	남성	33.5	13.7	16.2	5.1	31.5
	여성	23.0	19.2	16.4	3.8	37.6
연 령 $x^2 = 4.228$ $p = .836$	60대	30.3	16.0	14.3	3.9	35.5
	70대	26.8	17.4	18.8	4.3	32.6
	80대 이상	19.5	17.1	19.5	7.3	36.6
전 체		115(28.0)	68(16.6)	67(16.3)	18(4.4)	142(34.6)

* P < 0.05 ** P < 0.01 *** P < 0.001

-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남성인 경우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과 60대 이상 연령 모두에서는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어서’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전체적으로 노인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어서와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거주지역($P < 0.05$)과 경제수준($P < 0.01$)은 노인교육의 필요 이유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
- 응답 노인들에게 필요한 노인교육 1순위로는 일반 교양교육(건강, 질병예방 등)이 45.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취미·오락 교육 107명(21.6%), 봉사교육 49명(9.8%), 정보화교육 37명(7.5%),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기술 교육 32명(6.5%), 그리고 경제교육 24명(2.8%) 순으로 나타남(표 3-19. 참고).

〈표 3-19〉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 유형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반 교양교육(건강, 질병예방 등)	233	45.0
취미·오락 교육(노래 부르기 등)	107	21.6
봉사 교육(자원봉사 활동 등)	49	9.8
정보화 교육(인터넷 등)	37	7.5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기술 교육	32	6.5
경제 교육(투자, 보험 등)	24	4.8
무응답	14	2.8
합 계	496	100.0

- 응답 노인교육이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여가시간을 잘 보내는데 74명 (14.9%), 건강이 좋아지는데 64명(12.9%), 지식과 상식을 넓히는데 45명(9.1%), 용돈을 버는데 9명(1.8%), 일자리를 갖는데 3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20. 참고).

〈표 3-20〉 노인교육의 유용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 자리를 갖는데	3	0.6
용돈을 버는데	9	1.8
지식과 상식을 넓히는데	45	9.1
건강이 좋아지는데	64	12.9
여가시간을 잘 보내는데	74	14.9
모르겠다	5	1.0
무응답	296	59.7
합 계	496	100.0

- 노인교육의 유용성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3-21. 참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노인교육이 대개 여가시간 보내는데 유용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초등

학교 이하와 고졸은 여가시간 보내는데, 중졸의 경우는 지식, 상식을 쌓는데, 그리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 노인은 건강이 좋아진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1〉 노인교육의 유용성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노인교육의 유용성					
		일자리를 갖는데	용돈을 버는데	지식, 상식 쌓는데	건강이 좋아지는데	여가시간 보내는데	모르겠다
거주지역 $x^2 = 24.636$ $p = .006^{**}$	제주시	0.0	2.4	36.6	22.0	39.0	0.0
	서귀포시	2.6	10.5	28.9	13.2	44.7	0.0
	읍·면지역	1.7	3.3	15.7	41.3	33.9	4.1
학 력 $x^2 = 20.895$ $p = .140$	초등학교 이하	1.3	2.5	13.8	33.8	43.8	5.0
	중졸	0.0	3.5	35.1	31.6	28.1	1.8
	고졸	2.3	6.8	20.5	27.3	43.2	0.0
	대학 이상	5.3	10.5	26.3	36.8	21.1	0.0
경제수준 $x^2 = 9.699$ $p = .467$	상	2.8	5.6	25.4	35.2	28.2	2.8
	중	0.9	3.8	21.7	31.1	41.5	0.9
	하	0.0	4.3	17.4	26.1	43.5	8.7
성 별 $x^2 = 10.757$ $p = .056$	남성	3.3	2.2	25.0	38.0	29.3	2.2
	여성	0.0	6.5	20.4	26.9	43.5	2.8
연 령 $x^2 = 14.750$ $p = .141$	60대	1.7	4.2	26.7	25.8	40.8	0.8
	70대	1.5	6.1	13.6	42.4	30.3	6.1
	80대 이상	0.0	0.0	28.6	35.7	35.7	0.0
전 체		3(1.5)	9(4.5)	45(22.5)	64(32.0)	74(37.0)	5(2.5)

* $P < 0.05$ ** $P < 0.01$ *** $P < 0.001$

○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는 건강이 좋아지는데, 낮은 경우는 여가시간 보내는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남성은 건강이 좋아지는데, 여성은 여가시간 보내는데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대와 80대 이상 노인들은 여가시간 보내는데, 70대는 건강이 좋아지는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거주지역, 학력, 경제수준, 성별, 그리고 연령 변인과 노인교육의

유용성 내용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 거주지역 변인만이 노인교육의 유용성과 유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4) 노인교육의 문제점

- 노인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없다’가 170명(3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교육관리가 부실하다’ 115명(23.2%), ‘교육시설이 좋지 않다’ 63명(12.7%), ‘교육 수강생의 수준에 맞지 않다’ 37명(7.5%), ‘강사진이 좋지 않다’ ‘강사의 교육방법이 문제가 있다’, ‘교육기관이 가깝지 않다’ 각 8명(1.6%), ‘교육비가 비싸다’ 4명(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교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와 관리부실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표 3-22. 참고).

〈표 3-22〉 노인교육의 문제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없다	170	34.3
강사진이 좋지 않다	8	1.6
교육 시설이 좋지 않다	63	12.7
교육 수강생의 수준에 맞지 않다	37	7.5
강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8	1.6
교육비가 비싸다	4	0.8
노인교육 관리가 부실하다	115	23.2
교육기관이 가깝지 않다	8	1.6
모르겠다	60	12.1
무응답	23	4.6
합 계	496	100

〈표 3-23〉 향후 받고 싶은 노인교육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정보화 교육	51	10.3
건강 교육	163	32.9
경제/취업 교육	40	8.1
취미, 오락 교육	114	23.0
봉사 교육	31	6.3
노후준비 교육	10	2.0
외국어 교육	5	1.0
기타	4	0.8
무응답	76	15.6
합 계	496	100.0

- 따라서 향후 받고 싶은 노인교육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건강교육 163명(3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취미, 오락교육 114명(23.0%), 정보화교육 51명(10.3%), 경제/취업교육 40명(8.1%), 봉사교육 31명(6.3%)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23. 참고).
-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교육 수강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 126명(25.4%)로 가장 많고, 행정기관에서 예산지원의 확충 122명(24.6%), 교육시설의 개선 116명(23.4%), 재미있는 강의 방법 도입 51명(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24. 참고).

〈표 3-24〉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단위 : 명,

구분	빈도	비율
행정기관에서 예산지원의 확충	122	24.6
우수한 강사진	19	3.8
교육시설의 개선	116	23.4
교육 수강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	126	25.4
재미있는 강의 방법 도입	51	10.3
용돈을 벌 수 있는 기술교육 개설	35	7.1
모르겠다	15	3.0
무응답	12	2.4
합 계	496	100.0

5) 퇴직과 노인교육

- 응답 노인들이 가장 오래 종사한 일을 살펴보면, 농·어·임업 201명(40.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업주부 80명(16.1%), 자영업 71명(14.3%), 사무관리직 33명(6.7%), 전문직 29명(5.8%), 판매서비스직 26명(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거에 많은 노인들이 영농활동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음(표 3-25. 참고).

〈표 3-25〉 가장 오래 종사한 일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농, 어, 임업	201	40.5
자영업	71	14.3
전문직	29	5.8
사무관리직	33	6.7
판매서비스직	26	5.2
기능/숙련공	12	2.4
단순노무직	20	4.1
행정서비스직	20	4.1
전업주부	80	16.1
무응답	4	0.8
합 계	496	100.0

- 과거에 퇴직준비를 위해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28명(86.3%)로 가장 많고, 교육을 이수했다는 응답이 68명(13.7%)로 나타나 과거 퇴직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3-26〉 퇴직 준비를 위해 노인교육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	68	13.7
아니오	428	86.3
합 계	496	100.0

○ 퇴직준비 노인교육 경험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거주지역, 학력, 경제수준, 성별, 연령별로 모두 퇴직준비를 위한 노인교육 경험을 갖지 못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따라서 거주지역, 학력수준, 연령은 $P < 0.001$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성별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퇴직 준비를 위한 노인교육 경험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적 관련성을 맺고 있음(표 3-27. 참고).

〈표 3-27〉 퇴직 준비 노인교육의 경험 여부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퇴직준비 노인교육 경험(이수)여부	
		예	아니오
거주지역 $x^2 = 16.446$ $p = .000^{***}$	제주시	22.2	77.8
	서귀포시	18.3	81.7
	읍·면지역	8.6	91.4
학 력 $x^2 = 68.667$ $p = .000^{***}$	초등학교 이하	2.9	97.1
	중졸	16.1	83.9
	고졸	24.4	75.6
	대학 이상	44.4	55.6
경제수준 $x^2 = 20.723$ $p = .000^{***}$	상	21.8	78.2
	중	15.3	84.7
	하	2.4	97.6
성 별 $x^2 = 7.947$ $p = .005^{**}$	남성	18.3	81.7
	여성	9.6	90.4
연 령 $x^2 = 13.335$ $p = .001^{**}$	60대	18.4	81.6
	70대	9.9	90.1
	80대 이상	1.9	98.1
전 체		68(13.7)	428(86.3)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3-28〉 퇴직 준비를 위해 받은 교육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퇴직 후 사회적응에 대한 교육	13	2.6
퇴직 후 여가생활에 대한 교육	20	4.0
건강 유지에 관한 교육	10	2.0
퇴직금 투자에 관한 교육	15	3.0
재취업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훈련교육	6	1.2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교육	6	1.2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3	0.6
해당무	423	85.4
합 계	496	100.0

- 퇴직 준비를 위해 받은 교육으로는 퇴직 후 여가생활에 대한 교육 20명 (4.0%), 퇴직금 투자에 관한 교육 15명(3.0%), 퇴직 후 사회적응에 대한 교육 13명(2.6%), 건강유지에 관한 교육 10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8. 참고).
- 퇴직 준비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206명(4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받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83명(16.7%), 직장에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51명(10.3%), 퇴직 후에 그저 쉬고 싶어서 43명(8.7%), 삶에 바빠서 21명(4.2%), 알지 못해서 7명(1.4%), 퇴직 후 인생 설계를 잘 짜 놓아서 5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29. 참고).

〈표 3-29〉 퇴직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관심이 없어서	206	41.5
직장에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51	10.3
교육받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83	16.7
퇴직 후 인생 설계를 잘 짜 놓아서	5	1.0
퇴직 후에 그저 쉬고 싶어서	43	8.7
삶에 바빠서	21	4.2
알지 못해서	7	1.4
해당무	80	16.2
합 계	496	100.0

〈표 3-30〉 퇴직 후 현재 일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39	28.6
아니오	348	71.4
합 계	487	100.0

- 퇴직 후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348명 (71.4%), ‘일을 하고 있다’ 139명(28.6%)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남(표 3-30. 참고).
-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다른 지역 노인보다 퇴직 후에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고,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퇴직 후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일을 하고 있고, 연세가 많을수록 퇴직 후에도 일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표 3-31. 참고).

〈표 3-31〉 퇴직 후 일 참여여부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퇴직 후 일 참여여부	
		예	아니오
거주지역 $x^2 = 11.197$ $p = .004^{**}$	제주시	25.0	75.0
	서귀포시	13.3	86.7
	읍·면지역	33.6	66.4
학 력 $x^2 = 2.594$ $p = .459$	초등학교 이하	31.9	68.1
	중졸	26.6	73.4
	고졸	24.4	75.6
	대학 이상	24.4	75.6
경제수준 $x^2 = 12.898$ $p = .002^{**}$	상	26.8	73.2
	중	23.1	76.9
	하	41.0	59.0
성 별 $x^2 = 1.703$ $p = .192$	남성	31.3	68.7
	여성	26.0	74.0
연 령 $x^2 = 5.827$ $p = .054$	60대	31.5	68.5
	70대	28.1	71.9
	80대 이상	15.1	84.9
전 체		139(28.5)	348(71.5)

* $P < 0.05$ ** $P < 0.01$ *** $P < 0.001$

- 거주지역과 경제수준 변인은 퇴직 후 일 참여 여부와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퇴직 후에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일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노인들이 퇴직 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면, 농·어·임업 70명 (1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인사업 37명(7.5%), 폐품수집 11명(2.2%), 공공근로사업 10명(2.0%), 단순노무 6명(1.2%), 아파트 경비원 5명(1.0%) 건물, 주차관리인 2명(0.4%)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32. 참고).

〈표 3-32〉 퇴직 후 현재 하고 있는 일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공공 근로사업	10	2.0
아파트 경비원	5	1.0
건물, 주차 관리인	2	0.4
폐품 수집	11	2.2
개인사업	37	7.5
농·어·임업	70	14.0
단순노무	6	1.2
해당무	355	71.7
합 계	496	100.0

〈표 3-33〉 퇴직 후 현재하고 있는 일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퇴직 후 현재하고 있는 일							
		공공근 로사업	아파트 경비원	공공 시설 경비원	건물, 주차 관리원	폐품 수집	개인 사업	농어· 임업	단순 노무
거주지역 $x^2 = 49.144$ $p = .000^{***}$	제주시	2.8	0.0	0.0	5.6	2.8	47.2	36.1	5.6
	서귀포시	12.5	0.0	12.5	0.0	12.5	62.5	0.0	0.0
	읍면지역	8.2	4.1	0.0	0.0	9.3	15.5	58.8	4.1
학 력 $x^2 = 82.265$ $p = .000^{***}$	초등학교 이하	6.8	1.4	0.0	0.0	12.2	1.4	70.3	8.1
	중졸	11.4	2.9	0.0	0.0	5.7	51.4	28.6	0.0
	고졸	0.0	4.8	4.8	9.5	0.0	57.1	23.8	0.0
	대학 이상	9.1	9.1	0.0	0.0	0.0	54.5	27.3	0.0
경제수준 $x^2 = 45.227$ $p = .000^{***}$	상	5.7	5.7	0.0	0.0	0.0	48.6	37.1	2.9
	중	7.1	1.8	1.8	1.8	0.0	33.9	50.0	3.6
	하	8.0	2.0	0.0	2.0	22.0	2.0	58.0	6.0
성 별 $x^2 = 14.722$ $p = .040^*$	남성	8.0	5.3	0.0	2.7	12.0	29.3	38.7	4.0
	여성	6.1	0.0	1.5	0.0	3.0	22.7	62.1	4.5
연 령 $x^2 = 15.815$ $p = .325$	60대	7.0	3.5	0.0	2.3	4.7	30.2	47.7	4.7
	70대	8.5	0.0	2.1	0.0	14.9	17.0	53.2	4.3
	80대 이상	0.0	12.5	0.0	0.0	0.0	37.5	50.0	0.0
전 체		7.1	2.8	0.7	1.4	7.8	26.2	49.6	4.3

* P < 0.05 ** P < 0.01 *** P < 0.001

- 거주지역, 학력, 경제수준, 성별, 연령과 퇴직 후 현재의 일 유형과 교차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3-33. 참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농사일에 주로 종사하고,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은 노인은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남성보다 여성이 농업에 더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연령이 많은 노인들은 대체로 농사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학력 그리고 경제수준 변인은 0.001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성별은 0.05 유의수준에서 현재하는 일 유형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일을 하기 전에 특별히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 433명(95.2%), ‘교육을 받았다’ 22명(4.8%)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따라서 절대 대다수의 응답 노인들은 현재 일을 하는데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3-33. 참고).

〈표 3-34〉 현재 일을 하기 전에 특별 교육 수강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2	4.8
아니오	433	95.2
합 계	455	100.0

- 노인들이 퇴직 후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102명(20.6%)로 가장 많고, 퇴직 후 쉬고 싶어서 78명(15.7%),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56명(11.3%), 자녀들이 강력히 말려서 51명(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35. 참고).

〈표 3-35〉 퇴직 후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56	11.3
일자리는 있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19	3.8
퇴직 후 쉬고 싶어서	78	15.7
건강이 좋지 않아서	102	20.6
충분히 먹고 살만해서	19	3.8
자녀들이 강력히 말려서	51	10.3
노인이 되어 일하는 것이 창피해서	9	1.8
해당무	162	32.7
합 계	496	100.0

6) 노인교육 수강 기관

- 현재 노인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 70명(14.1%), 경로당 노인교실 69명(13.9%), 노인대학 38명(7.7%), 평생교육센터 17명(3.4%), 종교기관 14명(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그리고 노인대학에서 제공되는 노인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표 3-36. 참고).
- 노인들은 앞으로 노인교육을 받고 싶은 곳으로는 노인복지회관 114명(23.0%), 경로당 노인교실 110명(22.2%), 평생교육센터 80명(16.2%), 노인대학 77명(15.5%), 종교기관 28명(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대부분 노인들은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노인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3-37. 참고).

〈표 3-36〉 현재 노인교육을 받고 있는 곳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경로당 노인교실	69	13.9
노인학교	7	1.4
노인대학	38	7.7
대학의 평생교육원	9	1.8
평생교육센터	17	3.4
노인복지회관	70	14.1
종교기관	14	2.8
주민자치센터	7	1.4
해당무	265	53.5
합 계	496	100.0

〈표 3-37〉 향후 노인교육 수강 선호 기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경로당 노인교실	110	22.2
노인학교	12	2.4
노인대학	77	15.5
대학의 평생교육원	64	12.9
평생교육센터	80	16.2
노인복지회관	114	23.0
종교기관	28	5.6
기타	2	0.4
무응답	9	1.8
합 계	496	100.0

- 노인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시설로는 우선 책상·의자 203명(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래방 시설 129명(26.0%), 스피커(음향시설) 73명(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인들에게 편한 책상과 의자가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오락시설이 필요로 하고 있음(표 3-38. 참고).

〈표 3-38〉 노인교육을 받는데 가장 필요한 시설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책상, 의자	203	40.9
칠판(화이트보드)	33	6.7
스피커(음향시설)	73	14.7
노래방 시설	129	26.0
컴퓨터, 인터넷	47	9.5
건강/치료 기구	3	0.6
무응답	8	1.6
합 계	496	100.0

7) 노인교육의 활성화

-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로는 예산지원 및 확충 209명 (42.1%),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지원증대 94명(19.0%), 노인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지원 72명(14.5%), 경로당(노인 회관)에 교육프로그램 신설 62명 (12.5%), 노인교육 및 취업 등을 지원, 총괄하는 부서 신설 32명 (6.5%), 노인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24명(4.8%)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39. 참고).
- 앞으로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 예산지원과 확충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노인교육의 담당주체는 행정기관 185명(37.3%), 노인종합복지회관 168명(33.9%), 대한노인회 64명(12.9%), 민간기관 51명(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40. 참고). 따라서 노인들은 민간기관 보다는 행정기관과 노인종합복지기관에서 노인교육을 담당해 줄 것을 바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39〉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산지원 및 확충	209	42.1
노인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지원	72	14.5
노인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24	4.8
노인교육 및 취업 등을 지원, 총괄하는 부서 신설	32	6.5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지원 증대	94	19.0
경로당(노인 회관)에 교육프로그램 신설	62	12.5
무응답	3	0.6
합 계	496	100.0

〈표3-40〉 향후 노인교육의 담당주체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행정기관	185	37.3
농협	12	2.4
대한노인회	64	12.9
민간기관	51	10.3
노인종합복지회관	168	33.9
양로원/요양원	13	2.6
무응답	3	0.6
합 계	496	100.0

8) 고령사회와 노인교육

-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으로는 여가활동교육 251명(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화교육 128명(25.8%), 직업기술훈련교육 94명(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41. 참고). 따라서 노인들에게도 앞으로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한 평균수명이 길어져 여가시간이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되어 정보 및 여가활동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울러 직업기술훈련 교육에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표 3-41〉 향후 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정보화 교육	128	25.8
직업기술훈련 교육	94	19.0
여가활동 교육	251	50.6
외국어 교육	4	0.8
건강 교육	13	2.6
무응답	6	1.2
합 계	496	100.0

- 거주지역, 학력, 경제수준, 성별, 연령별로 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3-42. 참고), 제주시와 읍·면지역 거주 노인들은 여가활동교육이 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반면에 서귀포시 지역의 노인은 정보화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정보화 교육과 직업기술훈련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여가활동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또한 여성들은 여가활동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반면에 남성 노인들은 정보화 교육과 직업기술훈련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대체로 여가활동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2〉 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기술 훈련 교육	여가활동 교육	외국어 교육	건강 교육
거주지역 $x^2 = 28.163$ $p = .000^{***}$	제주시	21.1	14.8	63.4	0.7	0.0
	서귀포시	44.1	10.2	42.4	1.7	1.7
	읍·면지역	24.9	23.2	47.1	0.7	4.2
학 력 $x^2 = 60.552$ $p = .000^{***}$	초등학교 이하	14.6	20.9	60.7	0.0	3.8
	중졸	37.2	14.0	46.3	1.7	0.8
	고졸	39.5	12.8	44.2	0.0	3.5
	대학 이상	31.8	36.4	27.3	4.5	0.0
경제수준 $x^2 = 51.516$ $p = .000^{***}$	상	45.1	21.3	31.1	1.6	0.8
	중	23.3	16.3	58.4	0.4	1.6
	하	13.0	22.8	56.9	0.8	6.5
성 별 $x^2 = 20.469$ $p = .000^{***}$	남성	32.0	23.4	41.6	1.3	1.7
	여성	20.8	15.4	59.8	0.4	3.5
연 령 $x^2 = 10.244$ $p = .248$	60대	27.3	19.9	50.2	0.4	2.2
	70대	27.1	19.4	48.2	1.2	4.1
	80대 이상	16.3	14.3	67.3	2.0	0.0
전 체		128(26.1)	94(19.2)	251(51.2)	4(0.8)	13(2.7)

* $P < 0.05$ ** $P < 0.01$ *** $P < 0.001$

- 따라서 거주지역, 학력, 경제수준, 성별 변인은 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과의 0.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노인교육에 대하여 교육비를 내면서 교육을 받을 의향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표 3-43. 참고), 노인교육에 대한 교육비 납부 의향여부는 납부할 의향이 없다 280명 (56.5%), 납부할 의향이 있다 216명(43.5%)으로 납부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따라서 노인교육에 대하여 절반 이상의 노인들은 적극적 수강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음.

〈표 3-43〉 향후 노인교육에 대한 교육비 납부 의향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16	43.5
아니오	280	56.5
합계	496	100.0

- 노인교육에 대한 교육비 납부의향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3-44. 참고), 제주시, 서귀포시 및 읍·면지역 거주 노인들은 대개 교육비를 내면서 노인교육을 받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은 노인일수록 교육비를 내면서 노인교육을 받을 강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학력과 경제수준은 노인교육에 대한 교육비 납부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적 관계를 보이고 있음($P < 0.001$).

〈표 3-44〉 노인교육에 대한 교육비 납부의향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분		노인교육에 대한 교육비 납부의향 여부	
		예	아니오
거주지역 $x^2 = .598$ $p = .741$	제주시	45.8	54.2
	서귀포시	45.0	55.0
	읍·면지역	42.1	57.9
학력 $x^2 = 86.188$ $p = .000***$	초등학교 이하	23.7	76.3
	중졸	52.4	47.6
	고졸	68.6	31.4
	대학 이상	77.8	22.2
경제수준 $x^2 = 59.572$ $p = .000***$	상	69.4	30.6
	중	41.9	58.1
	하	21.0	79.0
성별 $x^2 = 1.931$ $p = .165$	남성	46.8	53.2
	여성	40.6	59.4
연령 $x^2 = 32.395$ $p = .000***$	60대	54.8	45.2
	70대	32.2	67.8
	80대 이상	22.6	77.4
전체		216(43.5)	280(56.5)

* $P < 0.05$ ** $P < 0.01$ *** $P < 0.001$

- 노인들은 앞으로 노인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니고 싶은 학교로는 대학교 130명(2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학교 115명(23.2%),

고등학교 110명(22.2%), 초등학교 109명(22.0%), 대학원 29명(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응답 노인들이 비록 나이가 들어도 학교를 다니고 싶은 강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45. 참조).

〈표 3-45〉 향후 노인교육의 진학 희망 대상학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초등학교	109	22.0
중학교	115	23.2
고등학교	110	22.2
대학교	130	26.2
대학원	29	5.8
무응답	3	0.6
합 계	496	100.0

- 노인교육을 위한 향후 진학하고 싶은 희망 학교에 대한 교차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3-46. 참고),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대학교와 대학원에 진학하여 노인교육을 받고 싶은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서귀포시 지역 노인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읍·면지역 노인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노인교육을 받고 싶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은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또한 나이가 적은 노인일수록 고등교육을 받고 싶은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6〉 노인교육의 희망 대상학교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노인교육의 희망 대상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거주지역 $x^2 = 56.155$ $p = .000^{***}$	제주시	11.1	14.6	27.1	35.4	11.8
	서귀포시	6.7	33.3	30.0	25.0	5.0
	읍·면지역	30.8	25.6	18.3	22.1	3.1
학 력 $x^2 = 752.762$ $p = .000^{***}$	초등학교 이하	43.9	45.2	5.9	5.0	0.0
	중졸	2.4	4.8	71.8	21.0	0.0
	고졸	1.2	1.2	8.1	84.9	4.7
	대학 이상	0.0	0.0	0.0	43.2	56.8
경제수준 $x^2 = 124.019$ $p = .000^{***}$	상	6.5	13.8	24.4	41.5	13.8
	중	16.3	24.0	26.4	28.9	4.5
	하	49.2	31.5	12.1	6.5	0.8
성 별 $x^2 = 44.412$ $p = .000^{***}$	남성	13.7	18.8	21.8	36.3	9.4
	여성	29.7	27.4	22.8	17.4	2.7
연 령 $x^2 = 32.968$ $p = .000^{***}$	60대	16.3	18.9	27.8	30.7	6.3
	70대	26.5	30.0	15.3	21.2	7.1
	80대 이상	37.7	24.5	17.0	20.8	0.0
전 체		109(22.1)	115(23.3)	110(22.3)	130(26.4)	29(5.9)

* $P < 0.05$ ** $P < 0.01$ *** $P < 0.001$

- 거주지역, 학력, 경제수준, 성별, 연령 변인과 향후 노인교육의 희망 대상 학교와 0.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음. 즉 도시지역 일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성 노인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노인교육을 받고 싶은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노인교육의 참여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표 3-47. 참고), 노인들은 교육 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교육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248명(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내 자신은 받지 않지만 타인에게는 권유할 것이라는 경우는 54명(10.9%),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경우는 42명(8.6%), 그리고 교육 분야에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37명(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47> 향후 노인교육의 참여 견해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관심이 없음	42	8.6
내 자신은 받지 않지만 타인에게는 권유 할 것임	54	10.9
교육 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교육 받을 것임	248	50.0
교육 분야에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교육을 받을 것임	37	7.5
모르겠다	114	23.0
합 계	496	100.0

<표 3-48> 향후 노인교육의 참여 태도 교차분석표 (단위: 명, %)

구 분		향후 노인교육 참여 태도				
		전혀 관심이 없다	본인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권유	교육 분야에 따라 선택	가능한 모든 교육 받을 것	모르겠다
거주지역 $x^2 = 26.035$ $p = .001^{**}$	제주시	4.2	10.4	56.9	6.9	21.5
	서귀포시	6.7	0.0	45.0	6.7	41.6
	읍·면지역	11.0	13.4	47.6	7.9	20.2
학 력 $x^2 = 97.183$ $p = .000^{***}$	초등학교 이하	14.9	17.0	34.9	3.3	29.9
	중졸	2.4	4.8	54.8	13.7	24.2
	고졸	1.2	5.8	76.7	5.8	10.5
	대학 이상	4.4	4.4	66.7	15.6	8.9
경제수준 $x^2 = 58.261$ $p = .000^{***}$	상	4.0	9.7	71.0	9.7	5.6
	중	7.3	10.1	48.0	8.5	26.2
	하	15.3	13.7	33.1	3.2	34.7
성 별 $x^2 = 3.802$ $p = .433$	남성	8.1	8.5	53.6	7.7	22.1
	여성	8.8	13.0	46.7	7.3	24.1
연 령 $x^2 = 30.929$ $p = .000^{***}$	60대	6.6	9.9	59.6	7.4	16.5
	70대	10.5	10.5	39.8	9.4	29.8
	80대 이상	11.3	17.0	34.0	1.9	35.8
전 체		8.5	10.9	50.0	7.5	23.2

* $P < 0.05$ ** $P < 0.01$ *** $P < 0.001$

- 향후 노인교육의 참여 태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3-48. 참고),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교육 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노인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 경제수준,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향후 노인교육 참여 태도를 보면 노인들은 대체로 교육 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노인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노인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은 노인일수록 교육 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노인교육을 받을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0.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제 4 장 제주노인교육의 활성화 방안

- 본 장에서는 제주지역의 노인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 노인교육의 추진전략, 그리고 경험적 조사연구에 바탕을 두어 제주지역의 노인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1. 제주노인교육의 기본 방향

가. 노인교육을 통한 세대간 통합

- 노인문제는 단순히 노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경제, 노동, 보건 및 의료, 문화 등과 같은 부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노인교육은 세대간 문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예컨대 고령사회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경우 경제적 생산성이 감소하여 젊은 세대가 사회적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전부터 노인들에게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잘 제공할 경우 노인 인력을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젊은 세대들이 노인층 부양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질 경우에 세대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만일 노인들이 은퇴 이전에 노후의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않고 대신에 사회적 부양에 의존하게 되면 젊은 세대는 노인의 사회적 부양에 대해 가능한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려 할 것임.
- 노인과 젊은 세대가 상호 이해와 사회부양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그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노인교육을 활성화시켜 세대간 통합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런 맥락에서 제주지역에서도 향후 노인교육은 노인세대들이 노후에 경

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젊은 세대에게 사회적 부양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나. 기술정보화 사회의 적응력 강화

- 21세기는 지식경제기반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정규 학교 교육 및 민간 교육기관에서 정보통신 기술 교육을 받은 결과 기술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현재의 노인세대는 정보기술 교육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음. 이런 상황에서 노인층은 젊은 세대와 정보화 격차 의식을 더욱 느낄 것이고 정보 공유 및 습득의 장벽에 부딪치게 됨.
- 물론 정보화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일부 노인들만 학습하고 있는 실정임.
- 고령사회에서 노인층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여 정보기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재구성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현재 운영되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중·장기적으로 중장년층 혹은 예비노인들을 위한 인터넷 및 컴퓨터 관련 교육들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유지

-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과거 보다 훨씬 연장되어 노후생활이 그 만큼 길어지게 됨. 그래서 은퇴 후 노후생활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하지 못하면 노인문제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임.
- 노인들이 젊었을 때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 혹은 은퇴 후에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노후생활에 바로 적응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임. 그렇기 때문

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생활, 재산관리, 건강, 일자리, 부양문제, 여가생활 등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 노인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노인교육은 노인들이 노후에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라. 평생학습 수요자로서 역량 강화

- 우리사회도 이제는 일정 기간에 학습 및 교육을 이수하여 나머지 생애주기에 전혀 학습하지 않은 체제가 아니라 전 생애주기를 통하여 학습하는 사회로 나가고 있음.
-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모든 세대에게 평생학습의 실현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음. 물론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충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제주지역에서 제주시는 2002년도, 서귀포시는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각각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음.
- 평생학습은 학습자가 능동적 입장에서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정보, 역량, 그리고 지식을 학습·습득하여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임.
- 따라서 노인들에게 노인교육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들이 바로 평생학습 수요자로서 적극적으로 학습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마. 노인교육을 통한 자치역량 및 참여의식 제고

- 노인들은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려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

을 제고하고 각종 노인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왜냐하면 노인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없이 수동적 태도를 가지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됨.

- 노인교육을 통하여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주고 노후에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하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교육 관련 다양한 담당 주체들이 협력하여 노인들의 역량강화 및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바. 노인교육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노인들은 퇴직 이전에는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하여 소외감 혹은 격리감을 크게 느끼지 않음.
- 그러나 퇴직 후에는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집에 하루 종일 있을 경우에 사회적 격리감 혹은 고립감을 느껴 정신·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됨.
- 따라서 은퇴 후 노인교육에 참여하는 일은 새로운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 생활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노인교육은 노인들에게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서 은퇴 후 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할 것임.

2. 제주노인교육의 추진 전략

- **상향적 전략** : 기존의 노인교육은 재정적·행정적 지원 범위 안에서 하향식(top-down) 접근에 의해서 주로 지원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지향하여 노인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운영이 재정립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수평적 파트너십 전략** : 노인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사회주체(예컨대, 지

역주민, 대학, 기업, 공공기관, 민간교육기관, 노인복지기관, 노인회, 연구소 등)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노인교육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교류, 협력 및 공유하는 전략을 마련함.

- **민주성·합리성 전략** : 노인교육의 발전을 위한 계획, 집행 및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각 사회주체들의 합리적 논의 및 타협을 통하여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할 전략을 마련함.
- **노인 중심의 접근 전략** : 노인교육은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계획되고 실천되는 것이므로 노인들이 욕구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노인들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지속가능성의 전략** : 노인교육은 일시적 혹은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노인교육의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함.
- **다양성의 전략** : 노인교육은 특정한 계층, 지역, 연령, 학력, 교육영역 등에 한정하여 계획되거나 실시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노인계층, 지역,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맞춤형 전략** : 노인교육은 실제로 노인들의 실제적 욕구 충족을 반영하여 그 효과가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접근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임.
- **통합성 전략** : 노인교육은 다양한 교육 부문(에컨대, 여가, 건강, 재산관리, 일자리, 노동, 주거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임. 왜냐하면 노후생활은 단순히 한 가지 영역에서만 필요한 교육 내용이 아니고 포괄적이고 종합적 교육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임.

3. 제주노인교육의 현황

- 제주지역의 노인교육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응답 분포에 근거하여 과거, 현재 그리고 고령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노인교육에 대하여 일반적 현황과 개선점을 언급하고자 함.

가. 제주지역 노인교육의 과거

- 제주지역의 노인들 가운데 과거에 노인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60명(52.4%)으로 거의 절반을 넘기고 있음.
- 노인이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과거에 노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음.
- 노인들이 과거에 받았던 노인교육은 취미·오락교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교양 교육, 봉사교육, 정보화 교육, 경제교육 등 순으로 나타남.
- 과거 노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노인교육에 대하여 51.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노인교육을 주관한 기관은 주로 민간기관, 노인회, 행정기관 및 농협,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으로 나타남.
- 과거에 퇴직 준비를 위해서 노인교육을 받지 않은 노인이 428명(86.3%)에 이르고 있음.
- 제주시 지역에 사는 노인일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여성보다는 남성 노인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은 노인일수록 퇴직 준비를 위한 노인교육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
- 퇴직 준비를 위해 받은 교육 유형은 대개 여가생활에 대한 교육, 퇴직금 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퇴직 후 사회적응에 대한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나. 제주지역 노인교육의 현재

- 현재 노인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응답자(496명) 가운데 198명(39.9%)를 차지하여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제주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현재 노인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서귀포시 지역 노인은 노인교육에 참여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현재 노인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노인교육을 받는 유형은 대개 취미·오락교육과 일반교양 교육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노인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은 대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대학, 평생교육센터 등으로 나타남.
- 현재 노인교육에 대하여 만족하는 노인은 절반 수준(57%)을 넘기고 있음.
-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퇴직 후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 노인은 139명(28.6%)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절대 대다수 노인들은 현재 퇴직 후 일을 하지 않고 있음.
-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다른 지역 노인들 보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퇴직 후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퇴직 후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유형은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사업, 폐품수집, 공공근로사업, 단순노무,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순으로 나타남.
- 특히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대개 개인 사업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현재 하는 일을 하기에 앞서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22명(4.8%)에 불과함.

다. 제주지역 노인교육의 미래

- 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은 여가활동 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기술훈련 교육, 건강교육 등으로 나타남.
- 학력수준이 높은 노인과 남성 노인들은 정보화 교육과 직업기술훈련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은 여가활동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여성 노인들에게는 여가활동 교육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들은 앞으로 노인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니고 싶은 학교로는 대학교(26.2%), 중학교(23.2%), 고등학교(22.2%), 초등학교(22.0%), 그리고 대학원(5.8%)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의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은 경향이 강함
- 향후 노인교육의 참여 여부에 대하여 355명의 응답 노인들 가운데 70.0%(248명)이 교육 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교육 받기를 원하고 있음.
- 노인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앞으로 노인교육에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

라. 제주지역 노인교육의 필요성 및 유용성

- 노인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은 410명(82.%)에 이르고 있음.
- 노인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어서(34.6%),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28.0%), 젊어서 못 배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16.6%), 친구와 어울리는 기회가 되어서(16.3%),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되어서(4.4%) 순으로 나타남.
-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의 유형은 일반 교양교육(건강 등), 취미·오락교육(노래부르기 등), 봉사교육(자원봉사 활동 등), 정보화 교육(인터넷 등), 취업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경제교육(투자, 보험 등) 순으로 나타남.

마. 제주지역 노인교육의 문제점

- 제주지역의 노인교육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노인교육 운영·관리의 부실, 열악한 교육시설, 교육수준의 부적절, 강사진의 실력 부족, 강사의 교육 방법, 교육기관 이동의 불편, 비싼 교육비 등으로 나타남.

바. 제주지역 노인교육의 활성화 방안

- 제주지역의 노인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교육수강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의 선택, 행정기관에서 예산지원의 확충, 교육시설의 개선, 재미있는 강의 방법 도입, 용돈을 벌 수 있는 기술교육 개설, 우수한 강사진 등이 지적됨.
-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역할은 먼저 예산지원의 확충,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지원증대, 경로당에 교육프로그램 신설, 노인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지원, 노인교육 및 취업 등을 지원·총괄하는 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4. 제주노인교육의 개선점

- 과거에 퇴직 준비를 위해서 노인교육을 별도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퇴직 준비를 하는 예비 퇴직자 혹은 예비 노인들을 위한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될 필요성이 있음.
- 노인교육의 유형이 주로 취미·오락 교육 및 일반교양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 고령사회, 정보화 사회 및 평생학습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내용이 부족하여 정보화 교육, 직업훈련교육, 퇴직 후 적응훈련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됨.
- 제주시 지역, 서귀포시 지역 그리고 읍·면지역 간에 노인교육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 학력과 경제수준에 따라 퇴직 후 일의 유형, 노인교육의 유형, 향후 고령사

회에서 노인교육 참여 필요성, 향후 진학 희망 대상 학교 등이 달라지므로 노인들의 학력 및 경제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노인교육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퇴직 후 노인들이 참여하는 일의 유형은 대체로 농사일, 개인사업, 폐품수집, 공공근로사업 등이지만 앞으로 노인들에게 보다 경제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다시 말해서, 노인들이 퇴직하기 전에 종사하였던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노인교육이 향후 질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려면, 행정기관의 예산확충,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내실화, 노인교육 운영·관리의 선진화, 교육시설의 개선 우수한 강사진 확보, 강사의 교육방법 개선, 저렴한 교육비 책정, 노인의 이동 편리성 제공, 경로당의 교육프로그램 신설, 노인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지원, 노인교육 및 취업 등을 지원·총괄하는 부서 신설 등이 개선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음.

5. 향후 제주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 여기서는 향후 제주노인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예컨대, 시설인프라 구축, 재정·행정적 지원, 교육프로그램의 혁신,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 노인교육 전문가 양성, 혁신사례 발굴, 평가시스템 등)들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함.

가. 제주노인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

- 제주지역의 노인교육들은 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에서 실시되고 있음. 물론 취미·오락 교육 혹은 일반 교양교육은 주로 교실이나 강당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책상, 의자, 칠판(화이트보드), 노래방 시설 등이 필요함.

- 그러나 노인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체형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책상, 의자, 시청각 시설, 음향기지 등에 대한 시설 투자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향후 정보화 교육, 직업기술교육, 건강교육 등과 같은 교육을 위해서는 컴퓨터, 인터넷, 각종 직업훈련기자재, 건강기구 등과 같은 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여기에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나. 행정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체제 개선

- 노인들 스스로 노인교육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 참여활동을 전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교육의 질적 개선은 어려울 것임.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노인교육이 어느 정도 자립적 기반을 가지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체제는 기존의 담당 부서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왔음. 그러나 향후 노인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 및 일자리 창출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인력개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경제정책과, 인적자원과 등과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또한 노인교육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타 부서들과의 상호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행정지원 체제를 새롭게 하여 노인교육의 관리 부실을 막아야 할 것임.

다. 제주형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제 수립

- 노인교육의 성격과 특성은 노인의 거주 지역, 학력, 경제수준,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과 관계없이 노인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음.
- 제주지역 노인들의 특성 및 생활문화를 고려하여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실제로 노인들의 교육욕구와 유형을 자세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학력수준, 경제적 생활수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연령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한 제주형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라. 다양한 노인교육의 사회적 주체간에 파트너십 강화

- 노인교육은 단순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일시적 교육 효과를 얻는 일이 아니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노인교육과 관련된 행정기관,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교육관련 연구소, 기업, 민간교육기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등이 상호 파트너십 연계 체제를 확립하여 노인교육·고용네트워크가 필요함.

마. (가칭) 제주노인교육협의회 설립

- 제주지역 노인교육 관련 다양한 사회적 주체(예컨대, 행정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민간교육기관, 노인회 등)가 중심이 되어 제주지역의 노인교육 정책 수립, 노인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고 공론화시켜 나갈 협의체가 필요함.

바. 일자리 창출·노인교육·고용과의 연계성 강화

- 퇴직 후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이 많고, 특히 여가 및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급증하는 실정임.
- 비록 지금까지 노인교육은 단순히 취미·여가 및 일반 교육에 치중되어 추진되어 왔지만 앞으로 노인교육은 예비 노인 뿐 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됨.
-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앞으로는 체계적 노인교육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육성·배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사. 노인교육과 평생학습의 연계 교육 강화

- 노인교육은 평생학습 차원과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임. 왜냐하면 퇴직 후 노인들이 사회적응 교육훈련, 재산관리, 재투자, 건강, 주거, 여가 등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임. 노인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교육이 상호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 혹은 제주시/서귀포시의 평생학습센터에서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평생학습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아. 노인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및 우수 강사 인증제 도입

- 기존에는 전문가 혹은 명망가가 특정 주제에 관하여 일반교양에 대한 강연/강의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음. 또한 노인복지사 혹은 레크레이션 전문가 중심으로 취미·여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음.
- 제주지역에서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노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대학의 관련 학과,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 민간교육기관 등이 협의를 통하여 노인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노인교육 전문지도자 교육 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은 우수 강사 인증제 제도를 도입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노인교육 인력을 양성·배출해야 할 것임.
- 노인교육의 전문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출된 인력은 우수 강사로써 공식적 인증을 받고 노인교육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면 노년 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자. 맞춤형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노인교육의 교육 내용은 주로 노인들의 욕구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성이 있음. 그래서 노인 중심 혹은 노인교육 소비자 중심에 맞도록 맞춤형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게는 기업이 원하는 직업훈련교육을 미리 시켜서 취업이 용이하도록 할 것임.
- 노인교육 서비스의 공급자는 수요자의 교육 내용, 강사진 구성, 교육비, 교육 효과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하는 맞춤형 접근 방법이 필요함.

차. 이동식 ‘방문교육’ 운영

- 노인들에게 중요한 정보 혹은 공지 사항과 관련된 교육을 방문교육 형태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노인복지 시책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혹은 지원사업인 경우에 노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교육이 필요함.
- 예컨대, 기초노령연금제도 혹은 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새로운 제도가 물론 하위 행정기관에서 공지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방문하여 일정한 교육 장소에 모셔 놓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카. 노인교육의 혁신 사례 발굴 및 참여 유도

- 노인교육이 활성화되어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노인교육의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동시에 노인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에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노인교육은 우선 노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노인교육의 혁신 사례를 널리 각종 방송·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노인의 참여 증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타. 제주노인교육의 계획, 집행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노인교육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주노인교육의 계획, 집행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각종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지원 효과, 그리고 노인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투입과 산출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에 대한 평가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제주노인교육의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관리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노인교육의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파. 제주노인교육의 수요 욕구 조사 및 DB 구축

- 제주노인교육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실천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21세기 제주노인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노인교육의 정책적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노인교육 관련 다양한 자료(예컨대, 노인교육기관, 노인 직업 유형, 노인교육 전문지도자, 노인교육 수요자, 노인인력의 고용 기업, 노인복지기관, 노인 일자리 및 고용 정보 등)에 대한 DB 구축이 요구됨.

제 5 장 결 론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노인교육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제주노인 교육 개선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노인교육은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던 것임. 왜냐하면 사회적 규범이 노인 중심주의와 노인공경 체제로 작동되어 나갔기 때문에 노인을 교육시키는 취지 자체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우리사회가 근대화를 통한 산업사회로 이행하고, 급기야 현대사회로 변화하면서 노인들이 교육서비스를 받는 교육 소비자가 되었음.
- 이제 노인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려면 다양한 교육(예컨대, 직업기술, 정보화 기술, 경제교육, 여가, 건강, 주거, 음식, 재산관리, 투자,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직장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들도 노후준비를 위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 볼 수 있고, 특히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노후 준비 교육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됨.
- 일반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삶을 살아 갈 것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혹은 사회참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현대사회에서 노인교육이 노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중요한 필요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 왜냐하면 노인교육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만일 노인들이 아무런 준비없이 은퇴하여 어느 날 갑자기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된 상태로 전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노인문제(예컨대, 고립감, 고독, 우울증, 소외감, 빈곤, 자살충동 등)들이 발생할 여지가 큼.
- 이런 측면들을 감안하여 본 조사연구는 제주지역의 노인교육 현황과 문제점

을 파악하여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려고 함. 그래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제주지역의 노인들은 과거나 현재에도 노인교육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편이나 노인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노인교육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노인교육을 받게 된 주요 이유로는 친구의 권유, 시간 보내기, 그리고 지식 및 소양 쌓기 등으로 나타남.
- 제주노인들은 대부분 취미·여가교육 혹은 일반교양 교육을 주로 많이 받고 있어서 고령사회에서 적응 뿐 만 아니라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한 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못함.
- 노인교육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거주지역, 학력, 경제수준, 성별, 연령에 따라서 노인교육의 참여, 노인교육의 필요성, 노인교육의 유형, 노인교육의 진학 희망 학교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노인교육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노인교육 관리 부실, 열악한 교육시설 환경, 교육내용의 부적절, 강사의 교육 방법 문제, 우수하지 못한 강사진 등으로 지적되었음.
-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수강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 선택, 행정기관의 예산지원 확충, 교육시설의 개선, 강의 방법의 개선, 직업기술교육 개설, 우수한 강사진 등이 필요함.
- 향후 노인교육의 방향은 노인교육을 통한 세대간 통합, 기술정보화 사회의 적응력 강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유지, 평생학습 수요자로서 역량 강화, 노인교육을 통한 자치역량 및 참여의식 제고, 노인교육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할 것임. ,
- 향후 제주지역에서 노인교육의 추진은 상향적 전략, 수평적 파트너십 전략, 민주성·합리성 전략, 노인중심의 접근, 지속가능성 전략, 다양성의 전략, 맞춤형 전략, 통합성의 전략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임.
- 끝으로, 제주지역에서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교육시설 인프라의 구축, 행정기관의 재정·행정적 지원체제 개선, 제주형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양한 노인교육의 사회적 주체 간에 파트너십 강화, (가칭)제주노인교육협의회 설립, 일자리 창출·노인 교육·고용과의 연계성 강화, 노인교육과 평생학습의 연계 교육 강화, 노인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및 우수 강사 인증제 도입, 맞춤형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노인교육의 혁신사례 발굴 및 참여 유도, 제주노인교육의 평가시스템 구축, 제주노인교육의 수요 욕구 조사 및 DB 구축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강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제주노인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60세 미만의 중장년층과 노인교육 담당자 혹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교육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제주지역 노인교육의 활성화 방안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거주지역, 학력, 경제수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노인교육의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고승한. 「제주지역의 노인복지욕구수요조사」 2005.
- 교육인적자원부. 「노인교육 발전 5개년 계획」 2001.
- 김성순. 「고령사회정책론」 서울: 익문사. 1984.
- 김중서. 「학교와 지역사회」 서울: 홍익제. 2003.
- _____. “노인교육의 교육과정 개발” 「노인문제와 노인교육」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1984.
- 김태준.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중·고령자 평생학습 정책방안” 「한국 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포럼자료집」 121-129. 2006.
- 백창연. “노인교육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8: 30-41.
- 신재주. 노인교육의 활성화 방안 - 사회 복지적 측면 - 「지역복지정책」 16: 137-157,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2002.
- 이병준·이이정·이화정. 「21C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1999.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2006.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6.
-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지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 한국은행 제주본부. 2007.
- 한정란. 「교육노년학 :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교육」 서울: 학지사. 2001.
- 한정란·이이정·조해경 외. 「세계의 노인교육」 서울: 학지사. 2006.

- Havighurst, R. J. & Albrecht, R.. (1972). *Older People*. New York: Longmans Green.
- Jarvis, P. (1990). Trends in Education and Gerontology. *Educational Gerontology*, Vol. 16 Nol., 401-410.
- Peterson, D. A.(1983). *Facilitating Education for Older Learner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Sherron, R. H., & Lumsden, D. B.(Eds.)(1990). *Introduction to Educational Gerontology*(3rd ed). NY: Hemishere Publishing Corp.

□ 부 록 □

설 문 조 사 표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주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 연구

설문조사표

--	--	--

안녕하십니까 ?

금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제주노인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교육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면접원이 귀하를 직접 찾아뵈어 간단한 사항들에 대하여 여쭙어 볼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향후 노인 복지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개인적 신상내용은 밝혀지지 않으며, 응답내용의 비밀이 절대로 보장됩니다. 비록 바쁘시더라도 설문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 10.

조사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연구책임 : 고 승 한 박사 (Tel. 726-6145)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조사센터 최 영 근 연구원 (☎ 726-7403)

면접일자	면접원	조사지역
2007년 9월		

♣ 응답요령 : 해당 난에 V표 또는 O표 하시면 됩니다♣

노인교육

1. 어르신께서 노인을 위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5번 문항으로)

2. 그렇다면 어떤 노인교육을 받았습니까?

(가장 많이 받은 교육을 한 가지 골라주십시오)

- ①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 ② 일반 교양교육 (건강증진, 질병예방, 노후준비 등)
- ③ 취미·오락 교육 (사물놀이, 노래 부르기, 게이트볼 경기 등)
- ④ 경제교육 (투자, 보험 등)
- ⑤ 봉사교육 (자원봉사 활동 등)
- ⑥ 정보화 교육 (컴퓨터, 인터넷 등)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3. 어르신께서 가장 많이 받은 노인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대체로 불만족
- ③ 보통
- ④ 대체로 만족
- ⑤ 매우 만족

4. 어르신께서 주로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는 노인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행정기관 (도청, 시청 등)
- ② 농협
- ③ 노인회(노인대학)
- ④ 민간기관 (시민사회단체, 종교기관 등)
- ⑤ 노인종합복지회관
- ⑥ 양로원/요양원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5. 어르신께서 현재 노인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6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10번 문항으로)

6. 그렇다면 현재 어떤 노인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② 일반 교양교육 (건강증진, 질병예방, 노후준비 등)
③ 취미·오락 교육 (사물놀이, 노래 부르기, 게이트볼 경기 등)
④ 경제교육 (투자, 보험 등)
⑤ 정보화 교육 (인터넷, 컴퓨터 등)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7. 어르신께서 현재 받는 노인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8. 어르신께서 노인교육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친구의 권유 때문에
②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③ 용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어서
④ 신문·방송에서 광고하니까
⑤ 지식 및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니까
⑥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9. 어르신께서 받은 노인교육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일자리를 갖는데
② 용돈을 버는데
③ 지식과 상식을 넓히는데
④ 건강이 좋아지는데
⑤ 여가시간을 잘 보내는데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⑦ 모르겠다

10. 어르신께서 생각하기로 노인교육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 ② 강사진이 좋지 않다
- ③ 교육 시설이 좋지 않다
- ④ 교육 수강생의 수준에 맞지 않다
- ⑤ 강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 ⑥ 교육비가 비싸다
- ⑦ 노인교육 관리가 부실하다
-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 ⑨ 모르겠다

11. 어르신께서 노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12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13번 문항으로)

12.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 ② 젊어서 못 배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 ③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되어서
- ④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되어서
- ⑤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어서
- ⑥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13.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 낭비여서
- ② 사는데 도움이 안 되어서
- ③ 교육 받을 나이가 아니어서
- ④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 ⑤ 돈이 들어서
- ⑥ 배울 만큼 배워서
- ⑦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14. 어르신께서 생각하기로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항목을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①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
- ② 일반 교양교육 (건강, 질병예방 등) ()
- ③ 취미·오락 교육 (노래 부르기, 등) ()
- ④ 경제교육 (투자, 보험 등) ()
- ⑤ 봉사교육 (자원봉사 활동 등) ()
- ⑥ 정보화 교육 (인터넷 등)
- ⑦ 기타 _____(적어주십시오) ()

15. 어르신께서 현재 주로 어떤 노인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_____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6. 어르신께서 향후 어떤 노인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_____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7. 어르신께서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행정기관에서 예산지원의 확충
- ② 우수한 강사진
- ③ 교육 시설의 개선
- ④ 교육 수강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
- ⑤ 재미있는 강의 방법 도입
- ⑥ 용돈을 벌 수 있는 기술교육 개설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 ⑧ 모르겠다

18. 어르신께서 가장 오래 종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_____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9. 어르신께서 과거에 퇴직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20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21번 문항으로)

20. 그렇다면 주로 어떤 교육을 주로 받았습니까?

(가장 많이 받은 교육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퇴직 후 사회 적응에 대한 교육
 ② 퇴직 후 여가 생활에 대한 교육
 ③ 건강 유지에 관한 교육
 ④ 퇴직금 투자에 관한 교육
 ⑤ 재취업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훈련교육
 ⑥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교육
 ⑦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1.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어서
 ② 직장에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③ 교육비가 비싸서
 ④ 교육 받고 싶어도 어디서 교육하는지 알지 못해서
 ⑤ 퇴직 후 인생 설계를 잘 짜 놓아서
 ⑥ 퇴직 후에 그저 쉬고 싶어서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2. 어르신께서는 퇴직하기 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다습니까?

- ① 농·어·임업 ② 자영업 ③ 전문직 ④ 사무관리직
 ⑤ 판매서비스직 ⑥ 기능/숙련공 ⑦ 단순노무직 ⑧ 행정서비스직
 ⑨ 경영관리직 ⑩ 전업주부 ⑪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3. 어르신께서 퇴직 후에도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24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25번 문항으로)

24.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공공 근로사업 (청소, 산불방지요원, 잔디 깎기 등)
- ② 아파트 경비원
- ③ 공공시설 경비원
- ④ 문화해설사
- ⑤ 매표소 관리인
- ⑥ 건물·주차 관리인
- ⑦ 폐품 수집
- ⑧ 개인사업
- ⑨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5. 현재의 일을 하기 전에 특별히 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예 (☞26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27번 문항으로)

26. 그렇다면 교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 3시간 미만
- ③ 3시간 ~ 6시간 미만
- ④ 6시간 ~ 9시간 미만
- ⑤ 1일 ~ 3일 미만
- ⑥ 3일 이상

27. 현재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 ② 일자리는 있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 ③ 퇴직 후 쉬고 싶어서
- ④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⑤ 충분히 먹고 살만해서
- ⑥ 자녀들이 강력히 말려서
- ⑦ 노인이 되어 일하는 것이 창피해서
-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8. 어르신은 현재 노인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경로당 노인교실
- ② 노인학교
- ③ 노인대학
- ④ 대학의 평생교육원
- ⑤ 평생교육센터
- ⑥ 노인복지관
- ⑦ 종교기관 (사찰, 성당, 교회 등)
-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9 어르신께서 앞으로 노인교육을 받고 싶다면 어디에서 받고 싶습니까?

- ① 경로당 노인교실
- ② 노인학교
- ③ 노인대학
- ④ 대학의 평생교육원
- ⑤ 평생학습센터
- ⑥ 노인복지관
- ⑦ 종교기관 (사찰, 성당, 교회 등)
-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30. 어르신은 앞으로 노인교육을 받는데 어떤 시설이 가장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시설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책상 · 의자 ② 칠판 ③ 스피커 ④ 노래방 시설
- ⑤ 컴퓨터 · 인터넷 ⑥ _____ (적어주십시오)

31. 어르신께서 앞으로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① 예산지원 및 확충
- ② 노인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지원
- ③ 노인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 ④ 노인교육 및 취업 등을 지원 · 총괄하는 부서 신설
- ⑤ 노인종합복지관의 지원 증대
- ⑥ 경로당(노인회관)에 교육 프로그램 신설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32. 어르신께서 앞으로 노인교육의 담당 주체가 어디였으면 좋겠습니까?

- ① 행정기관 (도청, 시청 등)
- ② 농협
- ③ 대한노인회(노인대학)
- ④ 민간기관 (시민사회단체, 종교기관 등)
- ⑤ 노인종합복지회관
- ⑥ 양로원/요양원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33. 어르신께서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인교육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정보화 교육 (인터넷, 컴퓨터 등)
- ② 직업기술훈련교육
- ③ 여가활동 교육 (여행, 서예, 사군자, 바둑, 등)
- ④ 외국어 교육 (영어 등)
- ⑤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34. 어르신께서 앞으로 노인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비를 내고 다닐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5. 어르신께서 앞으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학교에 꼭 가고 싶습니다?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대학교
- ⑤ 대학원

36. 어르신께서 앞으로 노인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 ② 내 자신은 받지 않지만 타인에게는 권유할 것이다.
- ③ 교육 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교육 받을 것이다
- ④ 교육 분야에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교육을 받을 것이다.
- ⑤ 모르겠다

개인적 특성

37. 어르신의 출생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제주도 ② 서귀포시 ③ 북제주군 (구) ④ 남제주군 (구)
⑤ 서울 ⑥ 충청도 ⑦ 강원도 ⑧ 전라도
⑨ 경상도 ⑩ 경기도 ⑪ 외국

38. 어르신은 제주지역에 거주하신지 얼마나 되었고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년 () 읍·면·동

39. 어르신은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친족
⑤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40. 어르신의 학력은?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학 졸 ⑥ 대학 졸 이상

41. 어르신의 생활형편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대체로 어렵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은 편이다

42. 어르신의 연세는? 만 _____ 세

43. 어르신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진

연구책임 :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김 성 봉 (제주대학교 교수)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주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

인 쇄 일	2007. 12.
발 행 일	2007. 12.
발 행 인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한미기획출판(064-753-7891)

ISBN 978-89-6010-028 2 93330